

인천유나이티드FC에 사랑을 보여주세요



한국 근대축구의 발상지이자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에 프로축구단이 탄생합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의 주인은 바로 시민여러분입니다. 2차 시민주 공모에 참여해 인천 사랑을 보여주세요. 한 주, 한 주 모아 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거름삼아 세계 최고의 명문구단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한국축구역사는 인천이 새롭게 써나갑니다.

창단 시민 주주에 대한 특별한 혜택 3가지

- 문학월드컵경기장 기념조형물에
창단 주주 명판 영구 보존
- 구단 멤버십 자동 가입
- 주주 초청 이벤트 실시

주식 청약절차, 청약기간, 청약장소

- ① 한미은행, 우리은행 청약 접수처 방문
- ② 주식청약서 작성 : 이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③ 청약접수처에 주식 청약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
- ④ 주식 청약금액 납부(1계좌 당 10주 5만원 이상)
- ⑤ 주식청약서 1통은 본인이 보관
- ⑥ 청약결과확인 : 개별통지 또는 공고

※인천유나이티드FC 홈페이지(www.incheonutd.com /
www.fcincheon.co.kr)에 접속해서 청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약기간 : 2004년 1월 12일 ~ 2월 12일

■청약장소 : 한미은행, 우리은행 인천전지점

(주)인천시민프로축구단
www.incheonutd.com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4년도 국비 신입생모집!

■과정별 모집공과 및 정원

과정	공과별	컴퓨터응용기계		산업설비		재료응용		전기제어		전자통신		출판인쇄		모델링		멀티미디어			
	컴퓨터응용	CNC선반	머시닝센터	자동차용접	특수용접	주조	정밀주조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자통신	공업전자	컴퓨터출판디자인	스크린인쇄	제품응용모델링		멀티미디어			
주간 1년		165		60		60		90		90		40		30		25		40	
주간 6개월		컴퓨터응용(15), 제품응용모델링(15)																	
야간 6개월		CNC선반(30), 전기공사(30), 스크린인쇄(30), 제품응용모델링(30)																	

■원서접수기간 및 전형일(전형방법)

- 1년 과정 / 접수기간 : '04. 1. 2 ~ 2. 18 / 전형일(방법) : '04. 2. 20(서류/면접)
- 6개월 과정 / 접수기간 : '04. 1. 2 ~ 2. 18 / 전형일(방법) : '04. 2. 24(서류/면접)

■제출서류

- 우리학교 응시원서(사진2매 부착)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체장애인은 해당증명서 1부

■입학자격

- 학력 : 제한 없음
- 연령 : 15세 이상 남·여
※단, 병역미필자는 교육훈련기간 중 군 입영 연기가 가능한 자

■원서접수방법

- 방법 : 방문접수 및 학교 홈페이지 접수

■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국가부담(무료)
- 매월훈련수당지급(우선 선정직종에 한함) : 일반지원자 20만원 예정, 고교재학생 10만원
- 매월 교통비 지급(통학생에 한해 5만원)
- 원룸식 기숙사 및 식사 무료제공
- 국가기술응시자격 부여
- 전원 취업알선 및 각종 장학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직업전문학교

인천직업전문학교 교무부

인천시 남구 주안5동 1389-2 (032)450-0310~19

www.vt-incheon.hrdkorea.or.kr

04 시장·시의회의장 신년사(요약)

06 그래 어디든 가보는거야 | drama & films 단골 촬영지 무의도

10 파이팅 인천 | 금호생명 펠컨스여자농구단

12 우리고장 에듀테인먼트 ㉓ | 인천사이버시티센터

16 in. Stage | 노래패 아름다운 청년 2004년 콘서트 외

19 공연리뷰 | 전경옥 2집 음반「사랑앓이」발매 기념 콘서트를 보고

20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첫번째 사람 | 정순일 화백

24 Good Morning 2004 | 새해 시청설계

28 새해 달라지는 것

31 청공청해 인천의제 21 뉴스

32 굿모닝 어진이에 | 2004 새해설계 편

34 과거로의 시간여행 | 삶이란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35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김정문알로에숯불갈비·대청도

36 테마가 있는 골목 ① | 부평 로데오거리(문화의 거리)

38 엄마와 함께 떠나는 문화재 탐방기행 ① | 송헌배수지 제수변실

42 Youthzine | 가정여자중학교 축구부

44 Healthy Life | 새해 운동계획 세우기

45 굿인천 굿뉴스 | '사랑의 체감온도탐' 제막 외

51 의정소식 | 인천광역시 의회사 편찬위원회 개최 외

52 독자마당 | 어머니와 겨울 외

55 Info Box | 시민사이버교육 이용하세요 외

59 화폭에 담긴 인천풍경 ㉑ | 황병식 <남촌의 봄>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4.1 (통권 121호)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굿모닝 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발행일자 2004년 1월 2일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인 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윤용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박상영 사진 심영보·하장원(시공보관실)·김성환(자유사진가)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 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산악인 김숙경씨가 갑신년(甲申年) 새해를 맞아 문학경기장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오르고 있다.

알찬 결실의 한 해 되길...



희망의 갑신(甲申)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인천에게 있어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열심히 뛰었던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민 모두의 단결된 의지로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최초로 지정되는 등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인천의 위치를 국내외에 천명한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이 인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새해는 탄탄한 바탕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리고 꽃을 피워 나가는 결실의 한 해여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찬 2004년도 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시민과 하나되어 최일선에 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인천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 건설」에 두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푸른 도시」, 「편리한 교통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살기 좋은 복지 도시」, 「동북아의 관문 도시」 건설을 위해 저와 1만여 공직자는 금년도 시정운영의 역점시책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제2의 개항기를 맞이하여 가능성과 비전이 현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인천의 앞날을 힘차게 열어 나가는 뜻깊은 2004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시민의 힘을 하나로' '인천의 힘을 세계로' 뻗어 나아갑시다.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존경하는 260만 시민여러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인천시의의회에서는 금년 한 해가 제4대 제1기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제2기 의회를 새롭게 출범시켜 지난해의 의정성과를 토대로 한 차원 높게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더욱 알찬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 운영의 최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 전반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협조 기능에도 충실을 기하여 강력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의회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 협조하에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인천시의의회는 26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어떤 고난이나 영광의 자리에도 항상 우리 시민과 함께 할 것이며, 한순간도 헛됨이 없는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시민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 경 철

넌 설경구, 난 최지우

겨울 한복판 무의도 바닷가가 사람들로 북적인단다.

무슨 일이 있는게다.

요즘 한창 뜨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소문난 탓이라나.



1

소문을 듣고 무의도로 향한다. 오후 한 시 근방의 잠진도 선착장. 섬을 찾는데 악조건이랄 수 있는 평일 오후, 그리고 겨울이라는 상황에서도 차들은 꾸역꾸역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매표소 유리문에 영화 ‘실미도’ 포스터가 큼지막하게 붙어있고, 그 옆 야트막한 산 허리엔 ‘드라마 스페셜 천국의 계단 촬영지’라 쓰여있는 플래카드가 너풀대고 있다.

무의도에 도착하면 곧바로 갈림길. 거리에 붙은 이정표는 목적지가 ‘실미해수욕장’ 인지 ‘하나개해수욕장’ 인지 묻는다. 그것은 곧 영화 ‘실미도’의 배경을 먼저 볼 것인가, 드라마 ‘천국의 계단’ 오픈세트를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의도에서 결정권은 전적으로 물 때가 쥐고 있다. 썰물 때라야 우리의 목적지 중 한 곳인 무의도 앞 실미도로 가는 길이 열린다. 동네 어귀 구멍가게에서 확인한 시간대는 우선 하나개로 향하라고 한다.



2



3 4



천 국 으 로 향 하 는 계 단 , 하 나 개

물은 먼 바다 쪽으로 한참이나 물러나 있다. 대체 바다가 있거나 한건지 궁금할 정도로 넓게 드러난 해변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어지러웠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모래 언덕 위, 짙은 회색 지붕에 새하얀 벽으로 아담하게 지어진 집이 하나 서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SBS 수목드라마)오픈세트이다.

이 한적한 바닷가 집은 주인공 최지우(정서 역)와 권상우(송주 역)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다. 기억을 잃은 정서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꼭 천국같애’ 라던 사랑의 안식처이다. 죽은 줄로만 알고 정서의 유분을 뿌린 곳도 바로 이 집 앞 하나개 해변으로 몰려드는 바닷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국의 계단’ 세트장으로 오르는 계단은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완고하게 버티고 서 있다. ‘여기가 거기야’, ‘진짜 멋지다’ 라고 소근거리며 힐끔거리기도 하고, 커튼 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주변을 맴돌던 이들도 더 이상 접근하기를 포기한 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이 바다를 찾는 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다. 배경은 어차피 그 자리에 있는 것. 드라마 속 연인들처럼 신발을 손에 든 채 ‘나 잡아봐라’ 하며 해변을 뛰어다니거나 혹은 ‘사랑은 돌아오는거야’ 라고 권상우처럼 소리치며 하늘을 향해 부메랑을 던져봐도, 이도저도 아니면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어도 다 잘 어울린다. 세트장 안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것과 엇비슷한 각도에서 해지는 풍광을 눈 안에 넣으면 없던 사랑이 새록새록 솟을지 모른다.

출사를 나온 한 무리의 사진동아리 회원들은 너도 나도 바다, 혹은 세트장을 배경 삼아 셔터를 누르기에 여념이 없다. 예전같으면 쓸쓸했을 이 주변 상가들은 연신 하얀 난로 연기를 밖으로 피워대며 영업중임을 알리고 있다. 드라마 촬영으로 하나개는 때아닌 겨울대목을 맛보고 있었다.



뼈 아픈 역사의 땅, 실미도

물이 다시 밀려오기 전, 서둘러 실미해변으로 향한다. 그곳으로 가는 길엔 천국의 계단 세트처럼 이국적인 분위기의 집들이 모여있다. 그들 가운데 숙박집 무의아일랜드는 영화 ‘실미도’에 출연하는 주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실제로 두어달 가까이 묵었던 집이다.

찢어진 만국기, 제 몫을 다한 채 멈춰버린 조명, 빛바랜 샤워장 건물, 누군가 흘리고간 튜브조각…。 실미해변은 파도소리마저 멀찌감치 물러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다. 실미해변에서 코 앞에 보이는 섬이 무인도인 실미도이다. 이 섬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실미도’는 북파공작특수부대인 ‘실미도 684부대’의 비극적인 실화를 그린 작품이다. 지난 1968년 1월 청와대에 침투하기 위해 무장공비들을 납파한 ‘김신조 사건’에 맞서 김일성을 죽일 목적으로 창설된 684부대는 3년 동안 실미도에서 31명의 부대원이 지옥같은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출정을 앞두고 ‘남북이 화해무드로 접어들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짧은 통지문에 결국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이 영화 관계자는 “촬영지를 물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섬 100여 군데를 돌아봤다. 제일 처음 실미도에 와봤고 또 맨 마지막에도 이곳에 와봤는데, 역시 실미도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실제 사건현장이기도 한 이 섬이 촬영지로 선택된 배경을 이야기했다.





1 쓸쓸히 걸어보기에 좋은 오픈세트 앞 모래사장 **2** 섬 곳곳에 오픈세트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3** 드라마속에서 하나가 해변과 바닷가집은 사랑의 안식처이다. **4** 해변은 겨울 바다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5·6** 실미해변에서 바라다 보이는 실미도 **7** 실미도로 가는 길은 물이 빠져야 비로소 드러난다.


칼국수에 속담히고 공항구경은 덤

 **1인당 여행비용은 두백이… 15,000원** 인천, 동인천역에서 출발하는 을왕리행 306번 버스 타고(인천공항 경유 성인 3,000원, 15분마다)→덕교동(거장포)에서 내려→10분쯤 걸어서 잠진도로→무의도행 카페리호 타고(성인왕복 2,000원)→무의도에→배시간에 맞춰 기다리는 마을버스(성인 1,000원)를 타고 하나개로. 실미도는 걸어서도 갈 수 있다. 총 소요시간 편도 2시간 30분. 차비(왕복 10,000원)+밥값(칼국수 5,000원) = 15,000원

마이카… 31,200원 차비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톨게이트(승용차기준 3,100원)→용유·무의도로→잠진도 연육교 건너→무의도행 배(승용차 운전자 포함 편도 20,000원, 별도의 성인 왕복 2,000원) 타고→5분 남짓 항해→무의도에 도착. 총 소요시간 편도 1시간 30분. 차비(왕복 26,200원)+밥값(칼국수 5,000원) = 31,200원

 **길** _ 잠진도에서 무의도 들어가는 배는 겨울철엔 오전 7시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중간에 배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로 미리 확인한 뒤 길을 나서야 한다. 또 물때와 바람의 영향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다. 잠진도 선착장에서 배를 탈 때는 뒤로 대기 때문에 운전자의 후진실력은 필수다. 무의도행 카페리호 : 751-3354~6, 무의운수 : 746-4491, 실미번영회 : 752-3636 하나개번영회 : 751-8833, 연안부두에서 여객선(우리고속훼리 887-2891 www.wk.co.kr)을 타고 가는 방법도 있다. 용유출장소 무의지소 : 760-7830

 **맛** _ 겨울철에 무의도 앞바다에서는 낙지가 많이 잡힌다. 산낙지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추위도 멀리 달아난다. 신선한 생굴도 1만원 정도면 푸짐하게 맛볼 수 있다. 하지만 뽕니뽕니해도 추운 속을 달래기에는 바지락 칼국수가 제격이다. 각종 야채와 바지락이 듬뿍 들어간 칼국수는 1인분에 5천원 정도이다. 활어회나 꽃게탕, 매운탕, 굴밥, 조개구이 같은 음식도 맛있다.

 **한 걸음 더** _ 인천국제공항 청사 : 여유를 두고 섬을 찾았다면 인천국제공항 청사를 둘러보는 것도 괜찮은 보너스여행이다. 청사 안에는 쇼핑시설과 음식점, 사우나 등 웬만한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직접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광판에 돌아가는 세계 각국 비행기 행선표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 괜찮은 기분전환이 된다. **영종대교 기념관** : 영종대교를 건너기 바로 전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량과학관이다. 영종대교를 놓는데 사용된 실물자재를 비롯해 다리의 모형과 영상 등 교량관련 자료가 테마별로 전시돼 있다. 또 세계의 유명한 다리 모형 등을 볼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을왕리해수욕장** : 겨울낭만1번지라 할 만한 바다이다. 무의도의 소박한 분위기와는 달리 카페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충분하다. 낙조포인트이기도 하다.



파 이 팅 인 천 | 금호생명 펄컨스여자농구단

겨울리그, 펄컨스 날다

인천을 대표하는 여자농구단 ‘금호생명 펄컨스’가 오는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4년 여자 프로농구 겨울리그를 앞두고 강팀으로의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새 감독으로 김태일(43) 씨를 선임한 뒤 FA최대어 중의 하나인 김지윤 선수를 파격적인 대우로 영입해 대변신을 모색하는 등 진용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다.

지난 2000년 기존의 5개 구단으로부터 베스트5를 제외한 두 명씩의 선수를 지원 받아 팀을 창단했던 금호생명은 그동안 선수수급 등 구조적인 문제로 6개 시즌 동안 최하위를 기록해 ‘만년꼴찌’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리그를 앞두고 새 감독과 스타급 선수 영입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새 사령탑으로 임명된 김태일 감독은 신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91년부터 약 4년간 미국 플러튼(Fullerton) 주립대와 UCLA에서 코치연수를 받으며 선진 농구를 익혔다. 고교 농구 감독과 남자 프로농구의 골드뱅크(현 코리아텐더) 감독대행 등 다년간의 현장 지도 경험을 쌓은 김 감독은 KBS와 굿데이신문 해설위원을 거쳐 MBC 여자농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감독은 “금호생명의 취약점인 포인트가드와 민을 만한 슈터 영입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외국인 선수의 적절한 운영과 신인 드래프트 등을 활용해 중위권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피력했다.

그의 취임일성은 곧바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올 처음 실시된 자유계약선수(FA)를 최대한 활용해 강팀으로의 변신에 나선 것이다. 지난 10월 6일 FA 최대어 중의 하나인 김지윤 선수(28세, 가드, 172cm, 전 소속 국민은행)와 지금까지 국내 여자농구 사상 최고 연봉인 1억 3천만원에 계약기간3년 조건으로, 신세계에서 활약했던 이연주 선수(27세, 가드&포워드, 174cm)와는 연봉 1억원에 3년간 입단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가드로 인정받고 있는 김지윤 선수와 지난 여름리그 20경기를 거의 풀타임으로 소화할 정도로(총 800분 중 790분 출장) 강한 체력과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연주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금호생명은 가장 취약했던 포인트 가드와 슈터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금호생명 펄컨스의 박상환 단장은 “두 선수와 고교 드래프트 1순위 선수, 외국인 선수 등을 활용해 지금까지의 약체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연봉 1억원이 넘는 두 선수를 동시에 영입할 정도로 팀에 대한 구단의 투자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해 올 겨울 시즌 대변신의 전주곡을 울리고 있다.

문의 _ 금호생명 홍보팀(02-6303-5482)

대한항공, LG정유 배구단도 인천식구



우리가 스포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오는 2005년부터 프로화가 예정된 한국배구 슈퍼리그의 인천 연고팀으로 대한항공(남자)과 LG정유(여자) 선수단이 각각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팀은 지난 12월 20일부터 시작돼 오는 3월 31일까지 치러지는 ‘V-TOUR 2004’ 한국배구수퍼리그에 참여한다. 이번 대회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중립지역)과 대전, 구미, 목포, 부산 등 연고지별로 열리는데, 인천에선 1월 18일~25일까지 인천시립도원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우리시는 앞으로 연고팀에 투어행정 및 홍보를 비롯해 연고팀 소유기업의 홍보, 경기장 시설 사용, 대회공식행사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은 야구(사진·SK와이번스)와 축구(인천시민프로축구단), 여자농구(금호펄컨스), 남자농구(전자랜드)에 이어 이번에 프로배구 남·여팀을 갖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문의 _ 시 체육진흥과(440-3270)

8세에서 80세까지 함께하는 디지털공동체

아이들에겐 스타크래프트 게임장으로, 어른들에겐 컴퓨터 교육장인 이곳에는 계층과 세대에 따른 차별이 없다.

오로지 행복한 디지털공동체만 있을 뿐이다.

사이버세계로 오르는 계단

흔히 한미은행 본점이라고 부르는 구월동의 한미은행 인천영업부 건물은 그 높이와 외형으로 인해 인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한미은행을 비롯해 각종 금융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오피스빌딩인 이곳에 요즘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들은 언제부턴가 한미은행 건물을 사이버센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로비에 들어서면 1층에 있는 은행 쪽으로는 아예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급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뛰듯이 올라간다. 그들을 실은 에스컬레이터는 사이버 세계로 오르는 계단이다. 2층에 자리잡은 인천사이버시티센터의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사이버시티의 당당한 시티즌으로 변한다.

인천사이버시티센터는 우리시가 '디지털게임산업의 메카' '정보문화의 전당' 등의 모토 아래 설립했지만 무엇보다 인천시민이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시민이 되길 소망하면서 지난해 5월에 220평의 규모로 구축한 사이버공간이다. 그 기능은 크게 보면 놀이(엔터테인먼트)와 교육(에듀테인먼트)이다. 그야말로 에듀테인먼트의 현장이다. 놀이로 접근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얻고 더 나아가 IT산업의 불씨를 키워보자는 데 있다.





1 사이버 세계로 오르는 계단 2 게임 삼매경에 빠진 아이 3 평균 연령이 대략 6·70대 중반인 인터넷 기초반 학생들 4 줄을 서시오~, 좌석배치 접수를 하는 아이들 5 센터에는 인터넷 기초부터 파워포인트 까지 다양한 과정이 개설돼 있다. 6 주인을 기다리는 가방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나오고 곳곳에 매트릭스 영화포스터가 걸려 있는 등 한껏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센터는 크게 이벤트홀, 인터넷카페, 전자도서관, 그리고 세미나실로 구성돼 있다. 영화와 만화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홀에는 30개의 관람석, 첨단 음향시설, 대형 프로젝트 빔 등이 설치돼 있다. 전자도서관은 CD롬이나 DVD,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정보를 검색하거나 영상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터넷카페는 인터넷서비스와 이메일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을 하면서 정보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자 쉼터이고 세미나실은 게임개발업체나 리눅스유저 동호회 등 관련단체나 모임의 만남의 장이다.

센터의 한낫 풍경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는 오후 3시경,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달리기 경쟁이라도 하듯 로비를 가로질러 2층으로 오른다. 센터의 문을 열고 안내프린트에 줄을 서서 급히 신청서를 기재하면서 헐레벌떡 묻는다. “자리 있어요?” 자리가 있음을 확인한 아이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한다. “아싸~”

배정된 자리에 앉은 아이들은 각자 게임의 세계로 빠져든다. 길지 않은 시간에 그들은 게임 속 사이보그가 된 듯 순간순간 희노애락의 표정을 짓는다. “어디 사니?” “용현동” “이곳에 자주 오니, 일주일에 몇 번 오니?” “세번요”. 시선을 화면에 고정해 채 답변은 단답형으로 되돌아온다. 이미 그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서바이벌 세계의 지존이 되기 위한 사이버 전사(戰士)일 뿐이다.

센터가 게임방이나 풀스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뒤따랐다. “게임시간을 보통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거나 비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거나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지도를 합니다.” 이곳에 상근하는 시 정보화담당관실 정인숙 씨의 설명이다. 오히려 쾌적한 환경과 시에서 운영한다는 믿음으로 인해 부모들과 함께 오는 아이들이 점차 늘고 있고 아이들끼리 오더라도 이곳에 온다면 선뜻 OK 사인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형제끼리 남매끼리 온 팀이 눈에 띄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곳이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CGV로 가는 동선에 있는 덕분에 아예 이곳에서 약속을 잡거나 영화상영시간까지 이곳에 머무르면서 게임을 즐기는 아베크족들이 늘고 있다.

할머니 두 분이 센터로 들어왔다. 은행을 잘못 찾으신 건가. 할머니들은 센터 가운데에 자리 잡은 인터넷카페를 지나 교육장으로 들어선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인터넷기초반 학생들이다. 강의가 시작되려면 30분 넘게 남았지만 40석의 자리는 거의 다 찼다.

“자, 어제 배운 네이버 창을 띄워보세요”. 강사의 말에 그들은 배운 대로 능숙하게 창을 연다. “오늘은 음악을 다운받아 듣는 법을 배울꺼예요”. 한 시간 후 그들의 헤드폰에서는 나훈아의 빈잔,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등이 흘러 나왔다. 불과 일주일 전 만해도 ‘엠포스’ 하면 무슨 새로 나온 파스 인줄만 알았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유리벽 저편의 아이들처럼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사이버세계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글_유동현 · 사진_김성환

이용안내 _ 인천사이버시티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일요일은 휴관이다. 이용은 무료이며 하루 이용시간은 이용객 수에 따라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제한한다. 세미나실 등을 단체로 이용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한다.

문의 _ 440-1501~6

해리포터 영화도 상영해요

센터에는 인터넷기초에서부터 홈페이지작성, 한글2002, 엑셀2000, 파워포인트, 컴퓨터관련 자격증반 까지 다양한 과정이 개설돼 있다. 보통 오전 10시, 오후 4시에 강의를 시작되지만 최근에는 직장인과 청소년들을 위해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야간반도 개설했다.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다.

이벤트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17일까지 매주 금(오후 2시, 6시)·토요일(오후 2시)에 DVD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코스모스, 선생 김봉두, 라이언일병구하기,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등이 준비돼 있다.





노래패

아름다운 청년

2004년 콘서트



지난 2000년, 인천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이 시대의 아름다운 청년들의 삶을 노래하기 위해 노래패를 결성했다. 노래패 이름을 아예 '아름다운 청년'으로 지었다. 그들은 노래패를 구성하자마자 '푸른 나이 청년' (2000년) 음반을 발표한 이후 2001년 '유월의 약속', 2003년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등 음반을 세 차례 발표했다.

건강한 전문 노래 일꾼들을 자임하는 그들은 여성의 날, 부평 풍물축제, 어린이공부방·어린이집 후원의 밤, 어린이날 행사 '어깨동무 내동무' 등 각종 문화행사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더불어 그 숲이 보이는 노래', 뮤지컬 '느티나무' 등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그간 4년 간의 활동을 갈음하는 첫 콘서트라는데

의미가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푸른 나이 청년' '외쳐봐' '유월의 약속' '우주인' '이 노래를 기억해요' '산 위에 올라가'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등 아름다운 청년이 그간 발표한 앨범 속의 노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새롭게 편곡한 노래와 아카펠라, 민족춤패 출 등의 축하 공연도 있다.

일시 _ 2004년 1월 24일(토) 오후 4시,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10,000원

예매 및 문의 _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설 시민문화센터 (442-8017)



고희 기념 김기순 작품전

주로 문인화, 한국화, 사군자 및 산수화, 인물화, 풍경화 등을 그리는 해인당 김기순은 제1회 인천미술전람회 특선, 제6·7·8 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 제22회 대한민국서화예술대전 입선 등의 수상을 했다. 이번 전시회는 고희를 맞아 그동안 그려온 작품을 모은 것이다.

전시기간 _ 2004년 1월 24일 ~ 2004년 1월 29일

전시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문의 _ 524-5098

하모니키즈의 하모니카 연주회

하모니카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아내는 악기이다. 손안에 든 작은 하모니카가 음을 내는 순간 우리는 어린 시절에 놀던 산으로 바다로 들뜬으로 내달리게 된다.

이번 하모니카 연주회는 2002년 일본에서 개최한 아시아 하모니카 대회에서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독주 및 3중주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비롯해 은상, 동상을 수상한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연주하는 무대이다.

일시 _ 2004년 1월 29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5,000원

공연문의 _ 031-408-7989



바다의 향기 시리즈中(유재형作)

늘보를 올린 용궁 도깨비

이 극은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극으로, '바다 살리기 환경뮤지컬'이란 타이틀이 붙는다. 우리네 밥 상위에 올려지는 수산물과 바다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어린이들이 넓고 깊은 바다를 닦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이 구상되었다.

일시 _ 2004년 2월 4일(수) ~ 2월 5일(목)

2월 4일 오후 2시30분·3시40분

2월 5일 오전 11시·오후 2시30분·오후 3시4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할인 5,000원 단체(20명 이상) 3,000원

공연문의 _ 극단「꼬마세상」 016-2500-560

016-774-0014



가족뮤지컬 <후크선장>



극단 <엄지>는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을 모험의 세계로 초대할 가족뮤지컬 <후크선장>을 공연한다. 이 뮤지컬은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피터팬과 후크선장을 통해 이기주의에 물들 수 있는 아이들에게 친구의 소중함, 우정, 용기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기쁨을 깨닫게 해준다.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더욱더 흥미와 호기심을 자아낸다.

일시 _ 20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오후 4시,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할인 8,000원

예매 및 문의 _ 016-324-6891

사진작가 4인 테마전

바다는 빛깔이 있다. 향기도 있다. 바다는 사시사철 다른 빛깔, 다른 향기로 다가온다. 새해를 맞이할 즈음의 바다는 어떤 빛깔, 어떤 향기로 다가올까. 최병관, 한재수, 유재형, 김민환 등 사진작가 4인은 인천바다의 여러 모습, 서해 갯벌, 그리고 인천지역 섬의 모습 등의 사진과 일출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전시한다.

전시기간 _ 2004년 1월 6일 ~ 1월 11일

전시장소 _ 신세계갤러리 (430-1157)

인천가톨릭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가톨릭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 김선명)는 한국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최초로 결성된 청소년 오케스트라다. 2000년 5월에 창단 연주회를 가진 이 오케스트라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수구어린이음악제, 교사양상불 등 청소년관련 행사에 찬조 출연을 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로서는 이번이 네 번째이다.

일시 _ 2004년 1월 28일(수)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무료(초대)

문의 _ 인천가톨릭 청소년 오케스트라(213-0332)

‘정약용 프로젝트’ 초청공연

전통 연희극 ‘다산 정약용’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정약용의 삶을 새롭게 조명한 청소년 예술극이다. 전통사회의 해체기이며 근대사의 여명기를 살아온 개혁사상가인 정약용의 삶을 이 시대에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재미와 감동을 담아 낸 프로그램이다.

일시 _ 2004년 1월 31일(토) 오후 2시,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7,000원

예약및문의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홍보팀(420-2716~7)

사랑과 희망 나눔 신년음악회

갑신년(甲申年)은 주폐의 서곡 ‘시인과 농부’로 힘차게 열린다. 우리시는 희망차고 밝은 2004년이 시작됨과 새롭게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비약하는 인천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사랑과 희망 나눔’이란 타이틀로 신년음악회를 연다.

1, 2부로 진행될 이번 음악회에는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을 비롯해 소프라노 김인혜, 김향란, 서윤진, 테너 강무림 그리고 국악인 강준섭, 김애신, 나연주, 김주리 등이 무대에 선다.

이 음악회를 관람하고 싶은 시민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예약 접수한 후 당일 공연장 입구 매표소에서 접수자 명단을 확인한 다음 좌석표를 배부받으면 된다.

일시 _ 2004년 1월 15일(목)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무료(초대)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3492)

인천이 담긴 책



대자연의 생명터전
갯벌 이야기

‘행동생태학’이란 다소 낯선 분야를 연구하는 인천토박이 백용해 씨가 펴낸 ‘갯벌이야기’ (여성신문사 · 240쪽)

는 지난해 300일간 돌아본 서해안 갯벌생태에 관한 현장보고서다. ‘갯벌 속으로’ ‘바다와 사람’ ‘자연의 젖줄-새만금’ 3부작으로 이뤄진 ‘갯벌이야기’엔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갯벌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이 담겨져 있다. 저자는 갯벌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단지 관찰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조개를 볼 때는 조개가 되고, 털공개를 볼 때는 털공개, 청둥오리를 볼 때는 새가 된다. ‘...“아글씨, 생각들 좀 해보소. 여그는 사람으로 치자면 여자의 자궁이여. 생명을 길러내는 곳이라 이말이며, 자궁을 없애는디 어찌 생명이 살기를 바라겠소?”...’ 그의 저서엔 전라도 사투리와 사진 등 ‘삶의 현장’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 책은 10년 전, MBC가 방영한 특집 다큐멘터리 ‘갯벌은 살아있다’의 후속편 격이라는 평을 받는다.

etc.

공연

겨울아동극 <개구리왕자>
1월 13일~18일 / 평일 11시(단체) · 오후2시 · 4시 주말 · 공휴일 12시 · 오후2시 · 4시
김스아트홀(김스클럽 구월점 10층)
문의 _ 434-7008

어린이연극 <어린왕자>
1월 16일 / 오후4시 · 7시
연수구청 대강당(공연시간 30분전 좌석표 배부)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악기여행>
1월 30일 / 오후 7시
연수구청 대강당(공연시간 30분전 좌석표배부)

무료영화상영

시립도서관 시청각실(오후 2시)
1/10(토) 덩 앤 더머
1/11(일) 바람을 본 소년
1/17(토) 포레스트검프
1/18(일) 아이언 자이언트
1/24(토) 인생은 아름다워
1/31(토) 나크
문의 _ 764-9931

전시

<인천컬렉션>
1월 13일~18일
신세계갤러리
<신년 세화전>
1월 20일~2월 1일
신세계갤러리

<도연재>
1월 30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전>
1월 30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영상실(오후 2시)
1/10(토) 동승
1/11(일) 미녀와 야수 2
1/17(토) 007어나더 데이
1/18(일) 라이온 킹
1/24(토) 선생 김봉두
1/25(일) 포카혼타스
1/31(토) 무간도
문의 _ 832-0915

공연리뷰 | 전경옥 2집 음반 「사랑앓이」발매 기념 콘서트를 보고

사십대, 더 처연한 사랑앓이



사랑에 대한 열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가 보다. 폭염 속에 쏟아지는 듯한 20대의 가슴앓이를 지나 조금은 차분하게 맞는 30대의 현실적 사랑.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더 깊고 처연한 40대의 사랑. 어디 그 것 뿐이라, 사는 동안 맞닿는 그 술한 사랑들. 차분히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사랑은 저마다의 색깔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전경옥의 콘서트를 보러 가는 차안에서 나는 내내 사랑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다가서는 불惑(不惑)이란 나이.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나의 삶과 방향을 전경옥의 노래는 어떻게 해석해 들려줄까... 지난 12월 8일 어둑해져 오는 오후 6시께 콘서트가 열리는 중구문화원(옛 인천문화원)은 아주 고즈넉했다. 전경옥의 노래와 콘서트 공간이 잘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인천근대건축물의 상징 중 하나인 옛 인천시립박물관 자리가 지금의 중구문화원 아니겠는가. 40대의 사랑앓이를 노래하는 전경옥다운 선택으로 보였다. 전경옥의 노래는 40대의 사랑앓이가 20대, 30대와 다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40대의 사랑은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 얻어지는 화해와 평화, 그 속에 담겨진 눈물... 정말 전경옥은 사랑을 아는 가수인 것 같다.

콘서트의 프롤로그는 「바다」라는 곡이었다. 이어지는 「사랑앓이」 「멀리 가는 물」 「더불어 숲」 등. 강한 비트나 기계음을 가급적 삼간 채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한 향수와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진정성이 담긴 곡들이었다. 음반 자서에 전경옥은 자신의 노래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여름 장대빗소리를 들으며 「사랑앓이」를 부르기 시작하여 낙엽이 뒹구는 가을에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손이 따뜻한 이유, 차가운 이유」를 두 손 모아 불렀다. 이듬해 봄에는-다시금 사랑이 날 찾아오겠지-라고 속삭이며 「굳은 살 떼어내며」로 사랑앓이의 긴 여정을 마쳤다. 그리 애뜻한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더 이상 내 속에 뜨거운 것이 없음을 느꼈을 때... 세월이 흘러 온통 검은 물이 되어버렸음을 깨닫는 순간은 참으로 아픈 자각이었다...’ 에필로그는 「다시, 바다」라는 곡이었다. 바다로 시작하여 다시 바다로 끝나는 것이었다. 전경옥이 그렇게 갈망하는 사랑앓이란 다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깨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동의 세상을 꿈꾸는 것은 아닐런지, 그러면서도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무한 애정은 아닐런지. 첫 음반보다는 곡 구성이나 가사가 훨씬 깊어졌고 멜로디 또한 마음을 비운 듯한 차분함이었다.

전경옥과는 구면이다. 5년 전 첫 음반 발매를 위한 기금마련 ‘인천 콘서트’를 당시 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기획했던 것이다. 그때 처음 전경옥의 노래를 접했고, 이내 나는 그녀의 열렬한 팬이 되어버렸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했지만 대중가수로 나선 전경옥.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접점을 잘 조화시키고 있는 전경옥의 음악에 대한 사랑앓이는 계속되어야 하고 나는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 _ 유봉희 (문화기획가, 도서출판 다인아트 대표)

사 람 하 나 만 나 고 싶 다 · 첫 번 째 사 람

금요일 오후의 정물화

정순일(鄭淳日) 화백

스승 서세옥(徐世鈺)으로부터

'점과 선과 색채의 시인' 이라고 평가받던

인천 송림동 사람 나산(羅山) 정순일 화백이

1998년 회갑전을 끝으로

모든 게 다 재미없어졌다는 것이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름없이, 여전히 허름하고 초라하고 우울한 듯한 실내, 소쿠리에 누운 마른 박대 몇 마리, 흙썬 무른 돼지 뼈다귀와 비지 그릇, 그리고 거기 구석 자리 둥근 탁자에 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쏟아질듯 기울어져 있는 남자, 용기(容器)만 세월 따라 양은 주전자에서 플라스틱 병으로 바뀐 누런빛의 김포(金鋪) 약주. 한낮의 고요함.

어느 달, 어느 주 금요일이건 오후 2시 무렵이면 중구 신포동 시장 안에 혼자 남아 있는 마지막 약주집, 신포주점 안에는 이런 무언극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이 풍경은 노곤하게 익어가는 시간과 술과 몇 가지의 물체들이 모여 빚어내는 파스텔조의 정물화 같기도 하다.

마르고 작은 체구, 그러나 이목구비만은 서양 사람처럼 또렷하고 분을 바른 듯 흰 안색을 가진 정순일(鄭淳日) 화백. 단둘이 앉아 듣고 있으면 그는 꼭 금요일 오후의 정물화 같은 남자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는 고요하기만 하다. 그의 다변(多辯)이라고 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혹은 좋은 것, 순수한 것 따위를 지칭하는 몇 개의 착한 단어들과 그가 오래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최병구(崔炳九) 시인, 손설향(孫雪鄉) 시인, 최승렬(崔承烈) 시인들의 이름 없는 이름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되풀이 늘어놓는 그런 반복에 불과하다.

그래서 것처럼 끝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한 문인은 그를 예순 여섯 살 먹은 늙은 어린 아이라고 부른다. 아니, 그에게는 유명한 불란서 미남 배우의 이름과 함께 늘 은둔의 화가라는 별명도 따라다닌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알만한 인천 사람 모두가 다 그를 화가로 알아보면서도 누구 하나 애써 그의 이름을 기억해 두지 않는,

잊혀지고 버려진 정물 같은 은둔의 화가.

“작품에 미쳐야 하는데 그만 약주에 미쳐서...” 스스로의 고백처럼 정 화백이 약주에 미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1980년대 초반 무렵, 직장이었던 K고등학교를 퇴근해 나와 저녁마다 취해 있는 그를 우리는 작은 소리로, 걸어다니는 ‘죽음의 그늘’이라고 불렀다. 거리에 쓰러지기 직전의 모델리아니처럼 그도 곧 무너질 듯 비척거리며 신포 시장 안 백향아리집, 미미집, 그리고 신포주점을 순회하듯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휘어진 어깨, 그리고 마를 대로 마른 앙상한 팔다리와 몸통이. 벨트에 조인 그의 바지허리는 쪼그라든 뱃살 위에서 혈렁하게 접히고 이리 저리 꼬였다. 무엇이 저 화가를 저렇게 내몬 것일까?

그 무렵 그는 아내와 헤어졌다. 마흔 네 살, 중년의 넘쪽이 아버지는 그 때 비로소 살아가는 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역설을 깨우쳤다. 딱히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었다. 교무실이고 어디고 빨대가 꽂힌 막걸리 우유팩을 들고 다녔다. 그것이 유일한 삶의 위안이었다. 안팎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막아준 것은 오히려 학교에서 가장 높으신 교장 선생님이었다. 삶이 괴롭고 막막해진 젊은 화가 선생의 속을 흰히 들여다보신 것이었다. 한 걸음 더 나가 예술하는 사람의 성격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헤아려 주어야 한다는 옹호까지 해 주었다.

아무튼 곧 죽을 것만 같았던 그는 죽지도 않았다. 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그렇게 1980년대는 그렇게 흘러갔다. 그의 손이 붓을 잡는 때는 손설향 시인의 시화전에 걸 그림이나 김구연(金丘衍)의 동화책 표지 같은 것을 그릴 때뿐이었다. 후배 조우성(趙宇星)을 위해서, 일찍 세상을 뜬 이효운(李孝閔), 그리고 서울서 이사 온 채성병(蔡成秉)을 위해서도 기꺼이 시화전 화제를 그렸다. 사라져 버린 이당기념관(以

堂紀念館) 전시실에서 열렸던 1982년의 최승렬 시인의 시화전은 전편 모두를 서예가 김인홍(金麟弘) 선생이 쓰고 정순일 화백이 그림을 그린 합작품이었다. 그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때가 행복했다. 자기가 그린 시화(詩畵)가 팔려서 가난한 문인들 대포 값에라도 충당이 된다면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었다.

“내 몸을 통과한 약주의 총량이 지금까지 얼마인 줄 알아요?”

그것을 내가 알 리는 없는 일. 다만 그는 그림을 그리는 일보다는 돌아가신 우문국(禹文國) 선생과 대작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어깨를 다쳐 출입을 못하시는 김인홍 선생과 만나 똑같은 약주에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더 즐거웠고, 죽은 동양화가 김영일(金英一)과 잔을 기울이는 시간을 훨씬 행복해했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랑승만(浪丞萬) 시인과도 가끔은 자리를 같이 했었던가. 창영학교 앞 건널목 근처 약주집을 다니던 때에는 잠시의 사랑일 수도 있는 어떤 여자 문제에 얽히기도 했다. 그리고 은성다방에서 무슨 전시회가 열리던 때쯤, 그는 그 사랑을 한 시인에게 도둑맞았다.

“어린애 같은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순수하고 싶은 게 내 소망입니다. 협회 같은 곳에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서 부대끼다 보면 순수함은 없어지고, 그게 싫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협(美協) 같은 곳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거구요.”

정순일 화백이 이렇게 은둔의 화가가 된 이유는 좀해서 남 앞에 나서지 않으려는 성격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결벽이라고밖에는 달리 부를 방법이 없는 지독한 순수 지향의 성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김인홍 선생이 쓴 ‘愛’자 붓글씨 밑에 그려진 흐린 채색 무늬나 불심(佛心)과 어울어진 연꽃 이파리가 그런 그의 마음의 상징이자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대변이나 하듯 그 액자들은 남의 눈에 가장 띄지 않는, 그래서 그가 평생 편안한 공간으로 여기는 신포주점 벽에 나란히 걸려 있다.

혼자 사는 일이 호젓해서 좋고 그리고 혼자 마시는

게 번거롭지 않아서 금요일 낮이면 나와서 약주 한 병을 마신다. 요즘 들어서는 한 병 이상을 마시면 실수를 할 것 같아 겁이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3병을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사들고 돌아간다. 그래야 한 주일을 이 말없는 벗, 약주와 함께 보낼 수 있다.

“이젠 모든 게 다 재미없어요. 작품도 재미없고요.”

서울 미대 재학 시절 국전 동·서양화부에 동시에 입선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그 입선이 연4회에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양화부에 추상 작품을 내어 최초 입선 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그가 이제 작품이 재미없다고 한다. 그의 스승 서세옥(徐世鈺)으로부터 ‘점과 선과 색채의 시인’이라고 평가받던 인천 송림동 사람 나산(羅山) 정순일 화백이 1998년 회갑전을 끝으로 모든 게 다 재미없어졌다는 것이다.

“종합비타민 한 통을 들고 어디든 공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 신포동에 약주 마시러 오는 사람을 폐인처럼 보아도 나는 신포동이 좋아요.”

정말 그림 그리는 일이 재미없어서일까. 화가 이철명(李哲明) 씨가 들어서자 얼굴에 온통 주름을 잡으며 웃고 좋아하던 그가 이런 알 듯 모를 듯 선문답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선다. 화가고 시인이고 다 떠난 신포동의 금요일을, 옛날보다는 조금 몸이 분 정 화백이 흔들리는 것조차 정물 같은 이 순수 소년이 옛날보다는 조금 덜 비척이면서 후배 화가 김진안(金眞安)의 손을 꼭 잡고 빠져나간다.

글 _ 김윤식 (시인) · 사진 _ 김보섭(사진작가)



동북아 관문도시로 한 걸음 ‘바짝’

새해 우리시의 화두는 복지도시 실현, 문화도시 창조, 환경도시 지향, 지식도시 구현, 국제도시 건설이다. 이같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해 예산 3조4천6억 원을 편성하고 알뜰한 살림살이에 들어갔다. 올해 예산은 지난 해의 3조952억 원보다 9.9% 증가한 규모다.

우리시는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여성, 문화, 교육, 환경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했다. 또한 푸른 도시·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기 위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투자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활발한 투자유치와 시민프로축구단 출범, 하늘·바다축제 등의 개최로 국내외에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한 차원 높이는데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참여복지 실천과 삶의 질 향상

무엇보다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내실화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반을 확충하며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에 힘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3.5%인상해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정책에 1천136억 원을 배분했다.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노인, 아동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등 장애인·노인·아동복지에 959억 원을 배정해 복지서비스의 총량을 확대했다. 또한 청소년정보센터 개설, 청소년증 발급 등을 통해 청소년을 육성, 보호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남녀평등도시 인천 구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건강증진 등 시민의 권익과 건강이 보장되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총 3천4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체육진흥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돼 품격있는 국제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이민사박물관을 비롯해 2008년까지 9개의 테마박물관을 건립해 시민들의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의 진흥과 체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을 개발하는가 하면 역동적인 인천을 선도할 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197억 원, 문화재시설 관리에 158억 원, 관광개발에 41억 원, 시민축구단 창단 친선경기 개최 등 체육분야에 350억 원,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에 9억 원 등 문화·관광 분야에 모두 4천985억 원을 배분했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시민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 인천을 조성하는데 힘쓴다. 푸른 심터 조성 10개소, 시가지녹화사업 13개소, 공원조성 10개소 등 공원녹지사업에 601억 원을 투입한다. 맑고 깨끗한 대기 질과 깨끗하고 건강한 수질 관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에도 힘을 기울인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확대 등 환경보전에 97억 원, 수질관리에 146억 원, 강화지역 송수관 부설 등 상수도 사업에 2천441억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하수도사업에 1천415억 원, 쓰레기소각시설 및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등 폐기물사업에 537억 원 등 총 5천237억 원을 예산을 쓸 계획이다.

균형있는 도시개발·체계적인 도시관리

신·구 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용현·학익지구, 동춘지구, 소래·논현지구 개발, 검단1·2, 원당·당하·마전, 불로·오류동 구획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북성지구, 용현·학익지구, 인천역 주변지역에 집중한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도시지역의 친환경적 관리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특수지역을 개발하는데 총 4천836억 원을 투입한다.

국제수준의 품질도시·안전도시 건설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고품격 품질도시를 구현한다.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고 경인선 2복선 전철 건설, 수인선 복선 전철 건설, 인천국제공항 철도 건설 등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한다. 또한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도로망 확충에 힘을 기울여 편리한 도로체계를 만든다. 이밖에도 서구·강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충하고 도로·교량 유지관리,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특수지역 및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시가 집중할 사업이다. 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는가 하면 소방관서 및 소방인력을 확충해 도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하철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공사에 444억 원, 인천지하철 계양정거장 건설공사 8억 원,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에 40억 원 등을 투자한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의 확충, 소방장비 및 구조장비 확충,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등에 718억 원을 배정했다.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우리는 2005년 10월까지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월에는 새롭게 개편되는 버스교통체계가 확정되며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버스노선을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상습 정체지점 개선, 버스정류장 시설의 환경개선 등으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와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며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도시의 주차문제 해결에도 힘쓴다.

여기에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159억 원, 도로 병목구간 해소 및 도로망 확충에 1천907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를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의 원년으로 삼는다. 2008년 1단계 사업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다. 특히 올해는 경제자유구역의 각 지구별로 투자유치 방향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최고의 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수준의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

이를 위해 송도정보화신도시 사업에 1천589억 원, 제2연륙교 건설에 112억 원, 인천국제공항주변 기반시설 확충에 235억 원을 배분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도 225억 원이 투입된다.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물류산업 육성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된다. 항공물류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하늘축제를 개최해 인천공항을 우리공항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항만분야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인천항 포트세일즈 및 입출항을 개선해 인천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공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물류도시 인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위해 물류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자유무역지역 출범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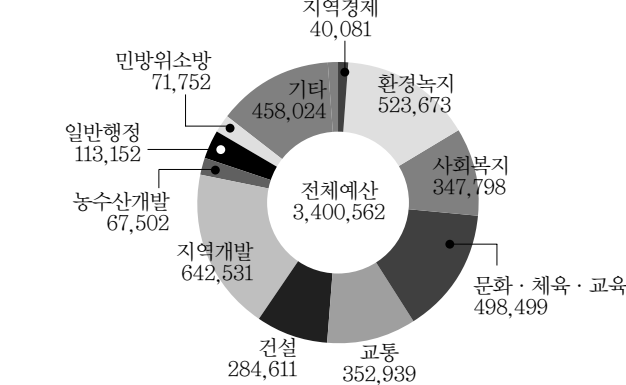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송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인천소프트타운 사업을 추진하며 e-비즈니스 기반구축, 벤처창업 기반의 내실화, 과학지식산업 발전기반 구축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지역상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확대한다. 여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등에 372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75억 원, 농수산진흥분야에 675억 원, 국제통상분야에 29억 원 등이 투입된다.

국제적인 자치역량 강화

시민위주의 열린 행정을 수행하고 시정의 발전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 운영,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지방공사·공단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해 우리의 자치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정보도시를 구현하고 생산적 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린 감사를 수행하며 시정홍보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2004예산 (단위 : 백만원)



2003년 시정운영성과

전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03. 10. 15)
경제자유구역은 8월11일에 항공물류 첨단산업관광단지인 영종지구와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의 송도지구, 금융 및 관광레저지구인 청라지구 등 3개 구역으로 지정(총 209㎢)됐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할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됐다.

푸른도시 조성 및 시민휴식공원 확충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마을쉼터 및 하천변 등 생활주변의 자투리땅에 '300만그루 나무심기'를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34만본(금년목표의 134%달성)을 심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시대 정착과 체계적인 품질도시 건설을 위해 6월 4일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

인천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인천 연고의 시민프로축구단 창립총회(7.17)를 개최하고 감독 및 코칭 스태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은 물론 시민주를 공모를 통해 창단자금을 확보해 올 K-리그 참가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 추진
도시 대기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기오염 상황실 운영 및 대기오염 측정소 1개소 설치, 천연가스 버스 200대를 보급 확대하고 가스충전시설 2개소를 준공하는 한편 환경기술전 개최 및 환경미래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대중교통이 불편한 8개 지역에 버스노선 12대를 신설하고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368대를 공급하였으며, 수도권교통편의를 위한 광역버스 6개 노선에 74대를 신설하였다.

동북아 물류거점인 항만 개발 및 투자유치
'90년부터 추진했던 북항 개발이 정부의 수도권집중억제 방침으로 13년간 유보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다.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물류비즈니스센타를 지원하는 복합적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전용 항만인 송도신항 건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개발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일거리' 창출, 복지시설 4개소 확충 및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운행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개발센터', '여성의 광장'을 건립, 추진했다.

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자유공원주변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구도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주거와 상업, 항만 등으로 혼재한 복합지역에 대하여는 항만배후상업지역으로 조성완료를 통해 건축개발을 완화했다.

시민문화 정착과 관광산업 육성
제1회 월미국제음악제 및 제12회 전국무용제 등 문화행사를 다수 개최하고 귀중한 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개소의 테마박물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인천개항기 근대건축물 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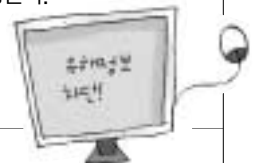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구축
지난해 초에 21세기 인천의 인천미래발전을 위한 준비로 항만공항 물류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기능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봉사과를 신설한데 이어 IT, BT 첨단과학기술 업무를 전담할 과학기술과와 경인고속 도로 직선화 및 제3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담당할 고속 도로개선팀을 신설했다.




청소년증도 발급하고... 참 좋겠네

<p>가산세 규정 개선 (1월)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적용했으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문의 _ 시 세정과 440-2540)</p>	<p>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정보화 지원센터 운영 (1월) 인천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에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선별적 활동까지 추진하는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차별화 된 컴퓨터를 보급하고,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64)</p>
<p>요보호아동 국내입양 양육비 지원 (2004년 중) 국내 입양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가정에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도 매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922)</p>	<p>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금 급여 인상 (1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이 3천300만 원이하인 가구에 월 89만8천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92만9천 원을 지급한다. 교육비·의료비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923)</p>
<p>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선 (1월) 자동차를 승계취득 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던 것을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변경된다. (문의 _ 시 세정과 440-2555)</p>	<p>문학 Youth Center 설치·운영 (2004년중)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육체험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문학 경기장 주경기장 지하1층에 X-Game장, 인공암벽장 등 실외 시설과 각종 연습실, 탁구장, 동아리방 등을 갖춘 청소년 전용공간인 Youth Center가 조성된다. (문의 _ 시 청소년자원봉사과 440-3942)</p>
<p>경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1월) 배기량 8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2%씩 과세했지만 경차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했다. (문의 _ 시 세정과 440-2546)</p>	



<p>장애인 자세유지기구·이동기기 보급사업 운영 (1월)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장애아동(3세~12세)에게는 장애인 자세유지기구·이동기기를 시에서 무료로 제작해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는 실비로 제작해 보급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64)</p>	<p>신교통카드 시스템 시행 (4월) 현재 사용중인 서울교통카드(선불)와 후불교통카드 외에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인 신교통카드가 인천지하철에서도 4월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70)</p>
<p>건강증진사업 시범 보건소 운영 확대 (1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 시범보건소를 확대 운영한다. 남동구보건소가 '운동실천사업', 서구보건소가 '금연 및 생활운동 실천사업', 강화군보건소가 '질병없는 건강 강화 가꾸기 사업', 계양구보건소가 '재가장애재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문의 _ 시 보건위생과 440-2733)</p>	<p>'1회 용품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4월) 1회 용품 사용규제업소(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의 _ 시 청소행정과 440-3665)</p>
<p>여성의 광장 운영 (5월) 올해 5월 '여성의 광장' 개관을 시작으로 6개 기관에서 사회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여성의 광장에서는 여성 전문 기술인력양성을 위해 IT·CT, 여성 창업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690)</p>	<p>석유류 가격표시제 변경 (2004년중)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입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업소내의 장소에 설치해야한다. 이때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정상가격 위에 표시해서는 안되며 정상가격과 다른 모양, 색상 등을 표시해서는 안되는 등 표시방법이 구체화된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884)</p>
<p>청소년증 발급 (2004년중) 우리시에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공공시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의 _ 시 청소년자원봉사과 440-3942)</p>	<p>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확대 (1월) 남구와 부평구에 이어 강화군에서 치매노인 돌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간 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의 원활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위해 남구와 부평구의 치매주간 보호센터에서 4월부터 차량을 운행한다. (문의 _ 시 보건위생과 440-2764)</p>
<p>셋째아 보육료 지원 (1월)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아이 중 엄마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셋째아이를 보육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681~4)</p>	<p>정신보건센터운영 (3월) 남구, 부평구, 강화군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위해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다. (문의 _ 시 보건위생과 440-2764)</p>
<p>청소년정보센터 설치·운영 (2004년중) 청소년들의 가출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상담, 속식, 아르바이트, 복귀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정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문의 _ 시 청소년자원봉사과 440-3944)</p>	<p>인터넷 유해 정보프로그램 차단시스템 구축 (2004년중) 지식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유해매체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가정 등에 인터넷 유해 정보프로그램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문의 _ 시 청소년자원봉사과 440-3947)</p>



	<div>  </div> <p>CCTV(무인단속)장비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7월) CCTV(무인단속) 장비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량의 표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우리시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 1월부터 홍보 및 계도를 하고,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해 시행한다. (문의 _ 시 주차관리과 440-3725)</p>	<p>선진국 수준 수질검사 항목 확대 (1월) 수돗물에 대해 법정항목 55개, 환경부 감시항목 15개 등 총 103개 수질항목을 검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농약류,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12개의 자체감시항목을 확대해 총 11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실 870-9431)</p>	
	<p>옥내누수감면 신청기한 완화 (2월) 장기 국내·외 여행이나 입원으로 요금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고 6개월 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868-8390)</p>	<div>  </div> <p>수돗물 품질인증제 시행 (3월) 시민과 함께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해 적합한 경우 수돗물인증마크를 부착해 각 가정에 수도꼭지 수돗물 품질을 인증해준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실 870-9431)</p>	
	<p>공동주택 세대별 사용량 산정방법 변경 (2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요금을 부과할 때 단일계량기 사용량 또는 세대별계량기 총합수량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일계량기 사용량과 세대별계량기 총합수량과의 차이량을 균등 분배해 세대별사용량에 가감해서 부과한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868-8390)</p>	<p>도서관 관외대출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2004년중) 인천지역 대출자 공유시스템을 도입해 7개 도서관 모두가 회원원을 공동으로 관리해 대출과 반납업무를 실시한다. 이용자는 한 도서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6개 도서관에 회원가입이 되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_ 시립도서관 764-9931)</p>	
	<p>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2월) 우리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2천5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2천650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5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문의 _ 시 산업노사지원과 440-2874, 2894)</p>	<p>자가용차량 전국 번호판제 실시 (1월) 자동차 등록이 시·도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처리가 가능하게 되며 자동차전산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해 주민등록지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본거지인 경우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자동처리 할 수 있다. 아울러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시·도간 사용 본거지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 1회만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고 전 국번호판으로 교체하면 자동차 폐차시까지 등록번호판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문의 _ 시 주차관리과 440-3932)</p>	<div>  </div>
	<p>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확대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할 경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 크론,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등 8개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페브리병, 부신백질이영양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등 3개 질환을 추가해 지원한다. (문의 _ 시 보건위생과 440-2733)</p>	<p>수도사용자 변동시 전·후 분할고지 (2월) 수도사용자가 변동되어 분리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사용량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고지서를 발부한다. (문의 _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868-8390)</p>	

‘기업메세나 활성화 방안’ 등 각종 토론회 줄이어



인천의제 21은 2003년 12월 내내 각종 토론회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12월 3일에는 문화분야에서 ‘기업메세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2월 4일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취업을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찾기’ 토론회가 있었다. 그리고 12월 17일에는 도시환경분야에서 ‘항만배후 교통망 확보’에 대한 토론회, 12월 19일에는 대기환경분야에서 ‘인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현안문제 해결이나 정책을 세우는 필수적인 코스로 어떤 일의 결정에 앞서 함께 모여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조정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시민들이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내놓지 않더라도, 우리 인천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의 자리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 시민의식이 향상 될수록 많은 시민의 참여가 있으리라 본다. 세 번에 걸쳐 열린 토론회에 대한 자료는 인천의제 21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

인천 참모습 알기 사업 등 전개

인천의제 21은 2003년도의 공통사업이었던 ‘담장없애기’ 사업과 ‘인천하천 살리기’ 사업 등 22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결실들을 맺었다. 올해에는 그 동안 추진하였던 일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갈 지속사업 13개와 ‘인천 참모습 알기’ 사업 등 새로 추진하는 11개 사업을 합쳐 총 2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보문화분과 _ 인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말하는 의제 21 (작은 눈으로 본 인천) / 시민과 함께하는 좋은 문예공연 만들기(문예진흥기금 모니터링) / 인천의제 21 홍보와 문화 활성화(갯벌생태학교 추진, 하천살리기 영상공모전 등)

물·생태분과 _ 인천지역 녹지축 잇기 및 숲 살리기 운동 / 바다사랑 활성화 운동 /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안찾기 (경제자유구역 물공급 확대방안 등)

대기환경분과 _ 시민이 참여하는 악취 모니터링 및 취약지역 개선추진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의제21 참여확대 사업 / 먼지 중심으로 한 대기환경개선 실천방안 수립

자원순환분과 _ 자연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알리기 /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 / 골목 청결 으뜸 동아리 선발 및 폐기물 이용 재활용품품 제작대회

사회복지분과 _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취업을 확대 방안 / 여성취업에 따른 육아문제 해결 방안 모색

도시환경분과 _ 기업하기 좋은 인천만들기 / 지속가능한 광역교통망 확보 /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방안 마련

공 통 사 업 _ 누구나 공유하는 인천만들기 - 담장없애기(하나되는 인천만들기 첫번째) / 인천참모습알기 - 삼십센티 서가 운동(하나되는 인천만들기 두번째) / 인천의제 21 참여 NGO 생태·에너지 학습관 운영 / 환경의 날 등 시민참여 행사 지원 / 인천의제 21 실천상황 평가 및 열린 이야기마당 개최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시범사업 전개 /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의제 21 기반 만들기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 선포



남구의제는 지난 12월 17일에 인천에서 계양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의제 선포식을 가졌다. “여러 사람이 모여 오랜 시간, 다가올 남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도 남구의제 21을 구민과 기업, 남구청의 합의사항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선포식에서 박우섭 남구청장이 밝힌 의지만큼 남구의 미래의 청사진이 담긴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이 지역의 모습을 올바르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해 본다.

굿모닝 어진이네



(제13회)

2004 새해설계 편

글·그림 박두리



2004년
갑신년을
맞이하러
인천시는
복지·문화·
환경·지식·
국제 도시 건설
등은 목표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세부목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① 참여복지 실천과 삶의 질 향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초1차생계비
3.5% 인상



장애인·노인·아동복지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복지서비스의 총량을 확대합니다.



②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체육진흥

상반기에
인천문화재단
설립 예정!



동북아 관문도시로서의
고품격 구현을 위해 광역도로망 확충과
재난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⑥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3월부터
버스 교통체계가
새롭게 확장!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병목구간 해소 및 도로망 확충에
힘씁니다.



④ 균형있는 도시개발·체계적인 도시관리

지속적인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
환경개선사업 추진

이민사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육성·지원합니다.



③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공원 조성 10개소 등
녹지사업에
601억원 투입!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 인천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처리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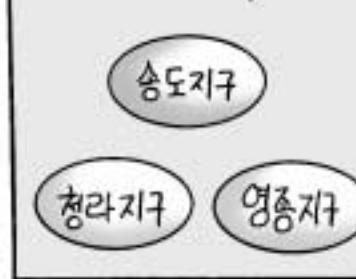


⑦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경제자유구역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추진!



송도정보화신도시 사업과
제2연육교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강화합니다.



⑧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물류산업 육성

항공물류협회의
활성화와
하늘 축제 개최



인천공항을 우리공항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천항만공사를 건립합니다.



⑨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송도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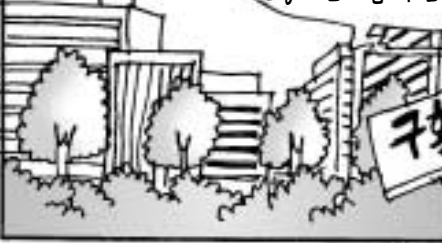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육성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확대합니다.



④ 균형있는 도시개발·체계적인 도시관리

지속적인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
환경개선사업 추진



용현·학익지구, 동춘지구,
소래·논현지구 개발,
검단1·2, 원당·당하·마전
북로·오류동 구획정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⑤ 국제수준의 품질도시·안전도시 건설

우와~ 드디어
경인선 2복선
전철 건설!



⑩ 국제적인 자치역량 강화

시민위주의
열린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행정과 생산적인 재정운영 및
공단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해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러
올해도
힘찬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삶이란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연탄 마련은 김장과 더불어 겨울나기의 필수였다.

연탄은 구멍 수에 따라서 구공탄, 이십이공탄, 삼십이공탄 등이 있다.

가정에서는 주로 이십이공탄을 땀다.

시집 온 새댁은 이 스물 두개의 구멍을 맞추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스중독, 연탄사재기... 6, 70년대 겨울철 뉴스는 연탄관련 기사가 대다수였다.

옛날식으로 연탄에 구운 고기 안주를 그리워하는

술꾼들 덕분에 요즘 연탄이 ‘부활’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이미 생활사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귀한 물건이 되었다.

이제 시인의 노래에서조차 연탄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鉉>

연탄 한 장 (안도현 詩)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하락)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김정문알로에숯불갈비의 갈낙전골

속 푸는데 ‘왔다국물’

낙지와 소갈비가 만나면? 갈낙전골이 된다.

김정문알로에숯불갈비의 인기 메뉴인 갈낙전골은 갈비도 먹고 싶고, 낙지도 먹고 싶은 사람들이 건강도 챙기고 싶을 때 선택하면 최상이다.

전골 육수는 황태 머리와 대파, 무, 다시마, 양파, 바지락 등 시원한 맛을 내는 재료를 모두 총출동시켜 만든다. 거기에 연안부두에서 그날 새벽에 사오는 생물 낙지가 들어가 개운한 맛을 거든다.

연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소갈비는 주방장이 직접 최상급 육질로만 엄선해 고른 것. 준비된 전골 재료에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알로에를 갈아 양념과 함께 버무린 다대기를 넣어 보글보글 끓여 먹으면 특히 속을 푸는데 ‘왔다’란다.

라면사리를 넣어 먹다가 김과 다진 야채를 넣어 밥을 볶아 먹으면 입맛도 챙기고 몸도 챙길 수 있다.

갈낙전골 25,000~30,000원

서구 심곡동 295-1

561-7000

200석

15대



대청도의 우럭백숙

펼떡거리는 싱싱함

‘대청도’라는 상호를 보면 틀림없이 주인장이 서해 5도의 하나인 대청도가 고향일거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다.

그곳에서 요리되는 물고기들은 청정해역 대청도 앞 바다에서 잡혀 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주인장의 친형이 대청도에서 배를 부리기 때문에 막 잡아온 생선으로 회를 치고 매운탕을 끓인다.

대청도의 간판 음식인 우럭백숙은 조미료를 절대 쓰지 않으면서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어 계절에 따라 썩갠이나 애호박을 넣고 싹뜨물처럼 뿌연 국물을 우려낸 것이다.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숙취해소에 그만이다. 보통 다른 곳에서는 마늘을 사용하지만 대청도에서는 마늘을 절대 쓰지 않는다. 자칫 마늘 향이 특유의 우럭 맛을 해칠까봐서이다. 이밖에 그곳에 가면 간재미탕을 맛볼 수 있는데 폭 쉼 감치를 넣고 끓인 맛이 그만이다.

우럭백숙 15,000원

남동구 구월1동 1142-9

442-2500

70석

10대



테 마 가 있는 골 목 ①
| 부평 로데오거리(문화의 거리)

나, 인천멋쟁이 부평에서 샀지

'로데오거리'라는 애칭은
아무 골목에나 붙는 호칭이 아니다.
부평 로데오 거리는 인천의 패션리더들이 인정한
유행의 거리이다.

'로데오거리'라는 애칭은 아무 골목에나 붙는 호칭이 아니다. 적어도 그 지역 최고 멋쟁이들에게 '패션1번지'라는 평가를 받아야 그런 이름을 하사받는다.

부평 로데오 거리는 인천의 패션리더들이 인정한 유행의 거리이다. **구청에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뒤 때마다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리지만, 평소에는 골목 양쪽을 가득 메운 다양한 패션상품점들을 찾는 멋쟁이들로 북적댄다.**

붉은 벽돌 바닥과 고전적인 느낌의 가로등으로 운치있게 치장한 이 골목에는 모두 160여 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다. 1층은 대부분 옷가게, 2층은 커피숍이나 미용실, 지하는 음식점이나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이다.

이 골목에는 유아복에서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캐주얼웨어, 그리고 정장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패션브랜드는 거의 들어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려다고 고가의 명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사 입을 수 있는 서민적인 중저가브랜드들이다.

때문에 이 거리를 찾는 이들의 연령에는 딱히 주류가 없다. 10대 소녀들부터 4,50대 중장년층 까지 소원도우를 할꼇거리기도 하고 직접 입어보기도 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365일 차없는 거리라 천천히 걸으며 아이쇼핑하기 에도 제격이다.



사진_김정화



와~ 인천 사람들은 100년 전부터 수돗물을 마셨어요?



1



2 3



인수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상아 어린이는 아직 3학년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뭔지, 국보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런 상아를 위해 엄마 이영선 씨가 우리시에 있는 문화재를 알려주기 위해 굿모닝인천에 신청을 했다.

상아가 우리시의 문화재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지난해 11월 우리시에서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송헌배수지 제수변실이다.

바람 뽕뽕 부는 날 수도국산으로

오늘이 올 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아침부터 상아 엄마 이영선 씨는 옷을 단단히 입고 가라고 일렀다. 그리고 오후에는 문화재를 탐방하러 가야 한다며 한 시간 일찍 조퇴를 하라고 하셨다. 상아는 문화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학 시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기쁜 마음에 문화재 탐방에 참가했다.

엄마와 상아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시청이었다. 거기서 문화재 둘러보는 것을 취재할 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사진작가 아저씨가 오시고 또 상아 일행을 위해 특별히 문화유산해설사 아저씨가 함께 가신다고 해서 은근히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모양이다. 문화유산해설사는 고궁이나 사찰 등의 문화재와 지역문화 등을 관광객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는 분이다.

상아가 찾아간 곳은 새로 생긴 아파트가 뽕뽕이 들어서 있는 송헌동이라는 곳이다. 아파트를 뽕뽕 돌아서 송헌배수지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다. 송헌배수지는 국가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인터폰을 누르니 배수지에서 근무하는 박금주 아저씨가 문을 열어 주셨다. 배수지 안으로 들어가니 인천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듯 전망이 좋았지만 뽕뽕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감상할 여유조차 없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해설사 지성창 아저씨의 설명이 시작되었다. 아저씨는 맨 처음 상아에게 문화재가 뭔지 아느냐고 물으셨다. 잘 모른다고 대답하자 아저씨는 문화가 무엇인지, 문화재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하셨다. “문화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모여진 것으로 세대를 거쳐 축적되고 변하는데 그러한 문화 중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설명이었다.

세월을 말해주는 색 바랜 취수탑

송현동 뒷산을 흔히들 수도국산(水道局山)이라고 부른다. 인천은 원래 우물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랑 같이 있어서 물맛이 나빴다. 개항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배도 많이 드나들게 되어서 물을 확보하는 일이 최대의 과제였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서울의 노량진에 수도시설을 만들고 1910년에 이곳 송현동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인천사람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했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보내온 물을 담아서 보관해 놓았다가 사람들이 필요할 때 물을 흘려 보내는 곳이다. 송현배수지는 바다높이를 기준으로 56.8m의 높이에 있는데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수돗물을 담아놓는 물탱크가 있다고 해서 수도국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송현배수지는 인천에 만들어진 최초의 상수도 시설이자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3년 11월 문화재자료로 새로 지정됐다.

쨍쨍 부는 바람을 맞으며 취수탑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송현배수지의 제수변실인데 제수변실은 물공급을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100년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취수탑의 돌 색깔은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쇠문은 녹슬어 있었다. 취수탑에는 ‘萬潤百涼(만윤백량)’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취수탑을 지나 물 탱크가 있다는 곳으로 올라가 보았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누런 잔디로 덮여있는데 그 밑으로 물 탱크 3개가 묻혀 있어서 송림동을 비롯한 6개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1 친절한 문화유산해설사 지성창 아저씨가 송현배수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2 역사의 때가 묻어나는 송현배수지 철제 정문 3 강추위 속에서도 문화재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고... 4 취수탑으로 오르는 화강석 계단 5 새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송현배수지 취수탑 6송현배수지 주위에 새로 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7 문화재가 무엇일까? 이젠 알듯...



주변 공원도 둘러보고

배수지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정문으로 나왔다. 수도국산이 이제는 공원으로 조성돼 나무도 심어져 있고 벤치도 있었다. 상아와 엄마는 춤지만 벤치에 앉아 오늘 배운 문화와 문화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공원 조성이 끝나면 송현배수지에 있는 문화재도 시민들에게 개방돼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송현배수지에 오기 전까지는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문화유산해설사 아저씨의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상아가 이제 곧 4학년이 되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문화재도 공부한다고 하니 오늘 미리 예습을 한 셈이라 더욱 뜻깊었다.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성환

송 현 배 수 지 제 수 변 실 (制 水 弁 室)

타는 목 달래준 물공급 관리실



동구 송현동 23-55번지에 자리잡은 송현배수지 제수변실은 1908년 제작되었다. 제수변실이란 배수지에서 배수관의 단수 및 유압조절기능을 담당하는 제수밸브를 보호하는 시설물로서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1905년 2월 일본인 나가시마(中島)박사의 지도 아래 서울과 인천 사이에 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대상지역을 답사하고 경인수도 설계를 완성했다. 이 설계도에 의하면 수원지는 한강 연안의 노량진 일대이고 급수지역은 서울, 용산, 인천 등 3개 지역이었다. 이에따라 송현배수지는 1906년 11월에 착공해 1908년 준공되었다. 1910년 10월에 생산량 12,000톤 송수량 9,000톤 규모의 노량진 수원지 정수시설을 준공해 노량진~인천 사이에 32.64km의 수도관을 부설하고 같은 해 12월 10일 급수를 시작했다. 송현배수지는 표고(標高) 56.8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36,780㎡이 고 5,000㎡ 저수조 3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물공급을 받는 지역은 동구 일원 및 중구 일부 지역이며, 저수능력은 20,000톤으로 준공 당시와 비슷하다. 저수탱크 시설면적은 1,463평, 대지면적은 11,137평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배수지 건물로는 제수변실과 23단의 화강석으로 된 계단, 철제 정문이 있다. 정문은 화강석 위에 콘크리트 기둥을 심고 4각 모양과 둥근 화강석의 받침을 만들었다.



이 지면은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로 구성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찾아가 보고 싶은 문화재와 가고싶은 날을 적어 편집실 우편번호 405-75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편집팀 앞, 전화 (440-2072)로 보내주십시오.

여풍(女風)당당한 ‘최강’ 축구팀



이른 아침, 모처럼 학교에 일찍 등교하니 운동장을 열심히 뛰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짧은 머리, 검게 그을린 얼굴, 하나로 통일된 트레이닝복.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짧은 머리에 검은 얼굴, 겉으로 보기엔 남자 같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이들은 가정여자중학교의 여자축구부 선수들이다. 내가 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그들을 봤을 때 ‘아니, 웬 남학생이 여학교에 있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런 눈길이나 물음도 이제 익숙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는 그들이다.

우리 가정여중의 축구부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에 흥미를 갖고 운동을 하다가 졸업하면서 스카우트되어 온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인천에 다른 여자축구부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여자 축구부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성적을 매우 잘 낸다는 것이다. ‘제 3회 통일대기 전국 여자 선수권 대회’ 우승, ‘2003 전국 중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 ‘제2회 퀸스 컵 전국 여자 선수권 대회’ 준우승, ‘전국 중별 선수권 대회’ 준우승, ‘2003 춘계 전국 중별 여자 선수권 대회’ 3위,

‘청학기 전국 중고교 축구대회’ 3위 등 나열하기에도 숨이 벅찰 정도로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가정여자 축구부에서는 포지션에 따라 기술을 익히고 기본기를 키운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도 각자 기술과 체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뛰고 배우고 연습한다. 축구부 선수들은 학교 뒤의 작은 숙소에서 합숙을 한다. 선수들이 다른 지방에서 왔거나 학교에서 먼 동네에 집이 있기 때문에 통학하는데 많은 에너지나 시간이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합숙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겨울에는 조금 추워서 힘들다고 한다. 지난 여름에는 서산으로 휴가도 갔다 왔다. 매일 더운 날씨에 힘든 훈련만 하다가 시원한 곳에 놀러가서 평소 무섭던 선생님과 축구부 선수들이 함께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무척 즐거웠다고 한다.

가정여자축구부 선수들도 학생인 만큼 반 친구들과 함께 수업도 받고 소풍도 간다. 물론 오전 수업뿐이지



1 2003 전국중별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후 기념촬영 2 제3회 통일대기전국여자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했다. 3 추운 겨울에도 축구부 선수들의 훈련은 계속된다. 쭉~욱

만 말이다. 아침운동 후 식사를 마치고 교실로 가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수업을 하고 다시 숙소로 가서 점심을 먹고 훈련을 시작한다. 선수들은 오후수업을 하지 못하고 가끔 시험 때문에 수업을 빠져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를 때가 많고 다른 친구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 반 친구들과 많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한다.

이렇게 재밌게 숙소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힘든 훈련을 받은 후 졸업할 때가 되면 인천디자인고등학교나 충남인터넷고등학교로 가서 더 힘든 훈련을 받는다. 중학교 때는 기술과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체력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일 뛰는 등의 고된 운동으로 많이 힘들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운동해서 나중에 여자 축구 국가대표선수가 되거나 체육 자격증을 따서 선생님이나 코치가 될 것이라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남자들이 하는 운동을 여자가 왜 하냐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가정여자 축구부 선수들은 더 열심히 운동을 한다. 그리고 여자 축구를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한다. 앞으로도 꿈을 이루기 위해 가정여자축구부는 더 열심히 운동 할 것이다. 가정여자중학교 축구부 화이팅!

글·사진 _ 김민경 (가정여중 3·MOO 제4기 학생기자)

‘가정여중’은...

서구 가좌동에 위치하고 있는 가정여중은 1986년 3월 1일 초대 조항운 교장선생님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현재 6대 홍응선 교장선생님까지 17년의 조금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아름답고 슬기로운 여성’이라는 교훈으로 총 1,247의 여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은 우리시의 청소년웹진인 MOO(<http://moo.incheon.go.kr>)의 학생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앞으로 MOO 기자들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나 우리학교 자랑거리가 있으면 <굿모닝인천>편집실(우편번호 405-75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편집팀 앞, 전화 440-2072)로 알려주십시오.

운동만한 ‘스트레스 해소제’ 있나요

‘새해엔 꼭 운동을 시작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새해 계획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바로 운동일 것이다. 하지만 계획 세우기는 쉬워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또 막상 시작하더라도 삼일을 넘기기 어렵다. 하지만 운동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하루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체나 정신의 항상성(homeostasis) 유지 능력을 떨어뜨려 건강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운동은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체력을 강화시켜 외부의 자극과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저항능력을 만들어준다.

나에겐 어떤 운동이 좋을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동료나 상대선수와의 경쟁심을 버리고 규칙적으로 장기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다한 경쟁심과 무리한 목표설정엔 부정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또 다시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길수도 있다.

가능한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능력비교가 되지 않는 스트레칭, 등산, 조깅, 수영, 자전거, 속보, 요가, 기체조 등 비경쟁적인 종목을 선택해 운동을 한다. 탁구, 테니스, 축구 등의 경쟁적인 종목은 운동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리한 마라톤의 기록단축 보다는 펀너(fun=enjoy) runner)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쇄되고 좁은 공간에서 하는 운동보다는 산이나 바다 같은 대자연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해소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성격에 따라 종목을 달리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성적이면서 의지력이 약한 편이라면 비경쟁적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반면 외향적이고 경쟁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경쟁적인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이 흥미를 갖는데 유리하다. 만일 바쁜 생활 속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경우에는 운동시설이 필요 없는 줄넘기, 아령체조, 조깅, 파워워킹 같은 운동을 한다.

운동은 어떻게 시작 할까

운동을 하는데는 목표를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동목표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스트레칭 20분, 줄넘기 20분 하는 식이다. 또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이 함께 운동하면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사고 등 다양한 운동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장기간 계속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운동을 마친 뒤에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해야 한다. 특히 운동 중에 소비된 에너지와 신진대사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 즉 단백질과 무기질 등을 보충해야 신체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운동은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약보다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제이다. 가장 좋은 운동량은 약간의 피로와 저항을 느낄 정도이고, 다음날 회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좋은 약도 적당해야 아름답듯 지나친 운동량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새겨두어야 한다.

글 _ 남구보건설 운동처방사 윤 철수(870~3526)



‘사랑의 체감온도탑’ 제막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체감온도탑’이 지난 12월 1일 오전 11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앞 광장에 설치되어 제막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교육감, 주요 기관·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고 ‘사랑의 체감온도’ 눈금 올리기, 기부금 전달, 기념 촬영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 등 전국 6개 광역시에 설치된 ‘사랑의 체감온도탑’은 ‘희망 2004 이웃돕기캠페인’ 기간(12월1일~2004년 1월 31일) 동안 이웃사랑에 대한 전국민의 정성을 모으는 탑이다. 9억2천1백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눈금이 올라가 전국 모금 목표액 921억원이 모아지면 100도(비등점)가 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440-2652)

자활사업종합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

우리시가 2003년도 자활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

활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전문적으로 평가했다. 우리시는 자활 전달체계 및 사업참여, 단체장 관심도, 지역특수성 분야 등 7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천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자활사업 토론회는 복지부의 자활사업 제도 및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 인천시 자활사업 실무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추진해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우리시는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11개의 자활후견기관 및 2개소의 재활프로그램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00여 명의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440-2925)

경제자유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내에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녹지지역 이외에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7.2㎢)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2003년 11월 30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개발제한구역(80.6㎢)도 2년 늘려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게 된다. 우리시는 이번 추가지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문의 _ 시 지적과(440-3463)



송도신도시로 가는 첫 길, 뚫렸다

송도정보화신도시의 첫 관문인 송도1교가 드디어 개통됐다. 지난 11월 27일 오후 1시 개통된 송도1교는 길이 517m 폭 24.5m의 다리이다. 이날 도로 6.5km(광 2-11호선 4km, 테크노파크주변도로 2.5km)도 예정보다 일찍 개통됐다. 송도1교와 도로의 조기 개통으로 송도신도시 진출입이 한결 원활하게 됐다.

문의 _ 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450-7195)

‘희망의 불꽃’ 불 밝히다



희망의 불꽃이 환하게 불을 밝혔다. 우리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청과 함께 보람찬 2003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2004년을 맞이하는 희망찬 마음을 260만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시청앞 광장 은행나무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제작했다. 이 나무가 바로 ‘희망의 불꽃’이다. 희망의 불꽃은 1월 말까지 인천을 환하게 밝힌다.

‘으라차차’ 인천 천하장사



2003세라젼배 인천 천하장사씨름대회가 지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시립도원체육관에서 열렸다. 12일 개회식 및 최강단전을 시작으로 13일에는 금강·한라 통합장사전, 14일에는 천하장사전이 열렸다.

시립도서관, 구월동에 새 청사 건립
인천시립도서관이 구월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우리시는 지난 4월 부터 10월 까지 6개월 동안 (재)한국산업개발 연구원에 의뢰해 인천시립도서관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인천시립도서관 신축이전 예상 부지는 남동구 구월동 산 1-14번지로 2007년 10월 경 개관 예정이다. 지금 중구에 있는 인천시립도서관은 80여 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시설과 운영 면에서 가진 한계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도서관 역할을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립도서관이 새 청사로 옮겨지면 현재의 도서관은 중구 구민과 주변의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 기능을 계속한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440-3240)

(주)대흥보빈 등 산업평화대상 수상
제13회 인천광역시 산업평화대상에 단체 부문 기업체분야는 (주)대흥보빈(대표 지충식)이, 노동조합분야에는 (주)풍산노동조합부평지부(위원장 김인달)가 각각 선정됐다. 또 개인부문에서 근로자분야에는 전국자동차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의 김성태 씨와 (주)대우일렉트로닉스의 홍갑선 씨가, 사용자분야에서는 기신정기(주)의 윤종수 씨와 성보공업(주)의 김선 씨가 각각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12월 24일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단체에게는 대상현판과 표창패 및 시상금 500만원이, 개인에게는 표창패와 시상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2003 ‘살기좋은 아파트’ 인증패 제막식
우리시는 공동주택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해마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 아파트단지로는 남동구 만수 벽산아파트가 뽑혔고 우수에는 남구 관교

성지아파트, 장려에는 계양구 두산·쌍용아파트, 특별상에는 계양구 효성5차뉴서울아파트가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03 ‘살기좋은 아파트’ 인증패 제막식이 지난 12월 10일 오후 2시 남동구 만수3동 햇빛마을 만수 벽산아파트 단지 안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안상수 인천시장, 신경철 시의회의장, 남동구청장, 지역구 시·구의회의원, 입주자대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에서는 표창장과 상금이 함께 수여됐다.

문의 _ 시 주택건축과(440-3813)

기업 스스로 하는 자율환경관리협약



기업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식이 지난 12월 9일 시청 대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엔프라니(주) 등 환경개선 의지가 강하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99년 부터 2차례에 걸쳐 관내 84개 대형사업장과 환경협약을 체결한 이래 3번째이다. 협약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장 스스로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된다. 이들 협약체결 사업장은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의 검사가 면제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진단이나 기술지원, 방지시설 설치자금 우

새 등대… 옛 등대, 임무교대



팔미도 등대가 새롭게 신축되어 지난 12월 22일 새 불을 환히 밝혔다. 새 등대는 높이 31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첨단항해지원시스템을 갖춘 신세대이다. 이 등대 앞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로 100년 동안 인천 앞 바다에서 길잡이 역할을 묵묵히 해낸 옛 팔미도 등대(시 지방문화재)가 영원히 함께 한다.

함께 하는 인천

‘3분’을 위한 작은 배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은 남성이 1분24초, 여성이 3분이다. 하지만 공연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대변기 개수는 이런 고려가 전혀 없어 많은 여성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우리시는 현실에 맞게 남녀대변기 설치비율을 바꾸기 위해 ‘화장실의 남녀시설 비율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의 화장실 100개소에 대한 남녀대변기의 비율(2001. 5. 11. 한국화장실협의회 조사)은 남자대변기 1개를 기준으로 할 때 여자 대변기 수가 1.15개 수준이다.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1,000곳은 1: 1.27수준이다. 우리시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하거나 남성화장실 대변기 수의 2.7배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2003년 12월 22일부터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중 주택을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시 검토, 반영하기로 했다.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연면적이 5천㎡ 이상 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 공중화장실은 별도로 관리하고, 공중화장실이 아닌 공공건축물은 12월 22일부터 발주된 설계용역분 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공공청사, 문화시설, 박물관, 도서관, 운동장 등 공공건축물의 화장실은 관리기관별로 자체 시설보강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주택건축과(440-3810)

Welcome to Incheon



고건 총리 남동공단 방문

고건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6일 인천을 방문했다. 고 총리는 안상수 시장, 유창무 인천중소기업청장과 함께 남동공단내 기업현장을 둘러보고 자동차 부품과 무선통신부품을 생산하는 한국단자공업주식회사를 둘러 근로자를 격려했다.



네덜란드 대사 인천방문

라딩크 반 볼렌호벤 주한 네덜란드대사가 지난 12월 12일 우리시를 방문해 안상수 인천시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의 우호증진과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송도신도시를 시찰했다.



대련시 당서기 안시장 예방

대련시 쑨춘란 당서기를 비롯한 싱량중 대련시 부시장 일행이 지난 12월 15일 오후 인천시를 방문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을 예방한 이들 일행은 양도시(인천-대련)의 우호협력 방안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선용자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문의 _ 시 환경보전과(440-3523)

2010 아시안게임 유치신청서 공식 제출

우리시가 지난 12월 16일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16회 하계아시안게임유치서를 공식 접수, 2010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2월 20일까지 전국 시·도별로 유치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자체 심의를 거쳐 국내 최종 후보도시를 선정하고 곧바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공식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 16회 아시안게임은 43개 회원국에서 37개 종목에 걸쳐 모두 1만8천여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010년 9월~10월 사이 열릴 예정이다.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게 되면 동북아를 넘어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커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 다짐

우리시는 지난 12월 22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1층 에머랄드홀에서 물류연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장, 항만·공항·육상물류관련 업체 대표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의 화물·정보·사람이 모이는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다짐하고 물류인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이날 연찬회에서 우리시는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한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북합운송주선업협의회' 등 5개 단체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수산정수사업소 ISO14001인증, 취득

수산정수사업소가 지난 11월 국제인증기관인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 취득했다.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수산정수사업소의 수도물 생산·공급 등 정수처리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2002년 3월 통수한 수산정수사업소는 하루 62만3천톤의 정수처리능력을 갖춘 인천시 최대의 정수장으로서 현재 남동구와 연수구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ISO14001인증을 계기로 수산정수사업소는 친환경적인 정수장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문의 _ 시 수산정수사업소(870-9225)

두 마리 토끼 잡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가 노인에게 일자리도 주면서 뒷골목도 깨끗이 가꾸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현안인 '일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처리비용 문제로 청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뒷골목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시책이다. 이 사업을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

‘인천유나이티드 FC’로 확정 시민주 2차 공모로 창단 작업 본격 돌입



서포터즈와 함께한 로란트 감독

시민들의 사랑으로 크는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이름이 '인천유나이티드 FC(Football Club)'로 정해졌다. 인천시민과 기업, 그리고 시가 함께 구단을 출범시켰다는 연합의 의미와 함께 시민구단으로 탄생한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다.

'유나이티드'는 지난 해 9월 프로축구단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한 결과 최우수작으로 뽑힌 것이다. 하지만 이미 순복음교회가 주축이 되어 2002년 창단한 할렐루야 축구단이 특허출원해 사용중이었기 때문에 구단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2월 23일 인천유나이티드 할렐루야 축구단으로부터 명칭을 기증받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창단을 승인받은 인천프로축구단은 이름 확정과 함께 창단작업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로고-엠블렘 등 CI개발과 스폰서 계약체결을 비롯해 아마추어 신인 선수 계약과 2004년 1월 중 프로축구 FA(자유계약 선수) 선발을 거쳐 2월에는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3월 중엔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상위팀인 감바 오사카 팀을 초청해 창단 경기를 갖고 3월 말에 K-리그에 참가하게 된다. 구단운영의 재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시민주 공모도 계속된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0일까지 1차 공모를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달 동안 2차 시민주 공모를 실시한다. 1차 공모기간이 너무 짧았으며 추가공모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번 2차 공모는 청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은행 외에 우리은행도 청약 대행기관으로 추가했다. 더욱이 직접 은행에 가서 청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www.fcinccheon.c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유나이티드 FC'는 1차 시민주 공모를 통해 기업체와 법인 240건 144억6100만원, 일반 시민 7556건 8억6760만원 등 모두 7796건 150억2800만원의 창단자금을 확보했다.

문의 _ 인천시민프로축구단 (423-1500)

<p>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노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를 생산적으로 해결하고 유휴노인인력을 투입해 뒷골목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저렴한 인건비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노인들도 대부분 이 사업이 지속되고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04년 부터 139개 읍면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834개의 새로운</p>	<p>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연간 최대 2,50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사업은 1월부터 2월까지 모집공고 기간 안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p> <p>문의 _ 시 사회복지과(440-2674)</p> <p>인천광역시 체육진흥유공자 표창 지난해는 우리시가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SK와이브스가 한국시리즈에서</p>	<p>준우승을 하며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인 한해였다. 또한, 인천 최초의 국제스포츠포츠대회인 ‘인천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와 ‘코리아오픈국제배드민턴 대회’ 등 국제스포츠포츠를 개최해 세계 속의 체육선진도시라는 이미지를 창출한 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구도의 명성을 되찾게 해준 ‘미추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의 창설은 2003년 인천시 체육발전의 큰 성과로 꼽아지고 있다.</p> <p>이에 따라 우리시는 2003년 한해 동안 체육 각 분야에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로자들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 인천체육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체육진흥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12월 30일 오전 10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생활체육분야 10명, 엘리트체육분야 10명, 체육시설분야 2명, 체육행정분야 9명 등 총 31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p>
--	---	---

‘토요휴무제’로 바뀔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앞두고 시청의 근무 형태가 종전의 ‘교대토요전일근무제’에서 ‘토요휴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 본청은 매월 첫째, 둘째, 셋째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전 부서가 근무하고 넷째 토요일엔 모든 부서가 휴무이다.

하지만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원업무는 휴무인 토요일에도 민원접수창구(민원실)에서 13:00까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


경미한 민원이나 상담민원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www.incheon.go.kr).

2005년 7월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 된다.

2004. 1 ~ 2004. 6 (6개월간)
매월 4째주 토요일 휴무<휴무일>
1/24, 2/28, 3/27, 4/24, 5/22, 6/26

2004. 7 ~ 2005. 6 (1년간)
매월 2, 4째주 토요일 휴무<휴무일>
2004년 7/10·24, 8/14·28,
9/11·25, 10/9·23,
11/13·27, 12/11·25

2005년 1/8·22, 2/12·26,
3/12·26, 4/9·23,
5/14·28, 6/11·25



당직실 _ 440-2222

민원실 _ 440-2581(일반민원), 440-2471(여권)
정문, 후문, 현관 및 종합민원실에서 청사안내

기타 문의사항 _ 시 총무과(440-2411~2418)

2003년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 추천제품

2003년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 추천제품에 (주)대산코르크의 의자 등 공산품 41개 품목과 공예품 2개 품목 등 총 43개 품목이 선정됐다. 품질우수추천제품이란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게 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개선을 통해 판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공예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시가 엄선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3년 10월 한달 동안 품질우수 추천제품 신청을 접수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제품을 뽑았다. 추천제품에는 우리시가 품질을 추천한다는 인증상표(마크)가 부착되고 제품전시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문의 _ 시 산업노사지원과(440-2912)

의 정 소 식

인천광역시 의회사 편찬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경철)는 지난 12월 4일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의회사 편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함께 의회사 편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과 전담요원 선정 그리고 의회사 목차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인 신경철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사 편찬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회의 역사를 담아 후대에 정성스럽게 물려주고 새로운 내일을

을 설계한다는데 의미가 크며 먼 훗날 큰 가치를 지닌 사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인천광역시 의회사는 지난 1952년부터 5·16 이전까지의 의정활동 상황과 199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인 인천광역시 의회 4대 1기까지의 의정활동 상황을 담게 된다.

-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 명단(15명)
- 인천광역시의회 신경철의장(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박창규 제1부의장(부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김성호 제2부의장(부위원장), 문화원연합회 허문명 지회장, 인천대학교 조휘각 교수, 인천대학교 정규서 교수, 인천대학교 정일섭 교수, 인하대학교 박은경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강석화 교수, 인천대학교 노영돈 교수, (사)인천광역시의회 이병화 부이사장, 인천광역시의회 안병배 문교사회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이강호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오홍식 사무처장, 인천광역시 역사문화연구실 강옥엽 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중국 대련, 천진시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신경철 의장과 김성호 부의장이 자매도시인 중국 대련시 인민대표대회의 초청을 받아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대련, 천진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련시와의 자매결연 제9주년을 기념하고,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시와의 경제 물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중국 경제발전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신경철 의장 등은 방문기간 동안 대련시 인민대표대회 및 천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해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참여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1월 9일 부터 11일 까지 3일간은 대련시 인민대표대회, 대련 PSA 부두, 대련 고신기술산업원구 및 금석탄관광개발구 등 대련시의 주요 경

제거점 시설을 시찰해 우리시의 송도테크노파크 및 용유·무의 관광개발과의 협력 가능성 및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했다.

대련시 인민대표대회 방문시에는 우리시의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미래 발전방향 및 청라지구 ‘중국성’ 개발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중국성’에 무역센터 및 전시실을 설치하고 비즈니스 사무소를 두어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양관광개발구인 금석탄관광개발구와 우리시가 개발 추진중인 용유·무의 해양관광지와의 연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시의 관광객 유치에 위해 관광벨트를 구성, 중앙부처와 협의해 어느 한 나라의 비자만으로 양도시를 자유왕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세계 관광객의 교환 유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11월 13일까지 3일간은 천진시 인민대표대회, 경제기술개발구, 신기술산업원구 등을 방문했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房鳳友 주임 예방시에는 우리시와의 더욱 긴밀한 관계증진과 천진시내 한국 기업체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협조와 함께 양시 의회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수도권 중심 항구도시간의 우의증진과 경제협력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어머니와 겨울

겨울은 힘듭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그럴 겁니다. IMF에 못지 않은 경기불황이 다시 한번 우리 경제를 뒤흔든다는데... 청년실업자 40만 시대, 오륙도, 38선, 사오정이라는 신조어까지... 이런 불경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층 더 추운 겨울이 되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장성해서 우리 자매들이 모두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있지만 어릴 적 기억 속의 겨울은 우리 가족을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어릴적 나는 몹시도 철이 없던 아이였나 봅니다.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떼쓰기 좋아하고 엄마에게 받기만 하려는 못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가난이라는 굴레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 할 때도 내 자신은 그 일에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가 추운 겨울날 이른 새벽에 추운 날씨와 싸우기 위해 몇 겹의 옷을 거의 동여매다시피하고 새벽시장에 나갈 때도 나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엄마를 한번도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닷가라 항상 바람이 불어 추운 겨울 새벽의 칼바람으로 온몸이 시렸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딸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엄마의 가게에 평소 부끄러워 가지도 않던 나는 언제나 용돈이 궁해지면 그 곳을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내게 용돈을 그저 말없이 주셨어요. '왜, 어디 쓸꺼냐? 돈 아껴써' 라는 등의 말 한마디 정도는 할만한데 그저 말없이 빙그레 밝게 웃으며 돈을 주곤 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주눅들지 않으려고 호기를 부려 빵이랑 과자를 선택스듯 사먹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작 나는 엄마에게 따스한 밥 한술 지어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의 새벽, 빈속으로 칼바람을 맞으며 새벽시장에 나가시는 어머니를 위해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는 혹여라도 자식

들이 껄까봐 조심조심 몰래 아침을 드셨는데 매일 같은 것만 드셨어요. 쉼 김치 한 그릇, 냉수에 찬 밥 한 덩이를 말아서 그냥... 물론 자식들 용으로 아랫목에 아침상을 미리 봐두고 계셨지만 그건 한사코 먹지 않으시고...

언젠가 꿈결인 듯 달그락거리는 식기소리에 잠이 깨어 부스스 눈을 비비며 엄마의 먹는 모습을 보고 왜 엄마는 쉼 김치만 먹느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좋아서라고 하셨지만 그때는 철이 없어서 정말로 엄마가 쉼 김치만 드시는 줄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지금 후회되지만 엄마는 저 세상 사람이 된 터라 그리움만 더해집니다. 언제나 넉넉히 자식들에게 베풀어준 엄마. 그래서 나는 엄마가 차신 전대(錢帶)주머니는 요술주머니처럼 내가 하고자하는 것을 무한정 만들어 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철이 들어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 보면 추운 겨울 날씨에 반찬가게를 하신 엄마의 손은 항상 물기가 있어 트다 못해 갈라져 손 여기저기에서 피가 나고 아렸을 테고 다리에 는 검정비닐을 아무렇게나 발목에 묶으신 채로 일을 했으니 항상 부어있었고, 어느 한곳 성한 데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뭐 약국가면 되겠지, 장갑 끼면 되잖아하는 어린 생각으로 그냥 지나친 일이 후회됩니다.

추운 겨울날... 유난히 엄마의 따스한 손길이 그리웁습니다. 그리고 후회됩니다.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한 불효에 대해... 너무 일찍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을 그래도 견디고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가족 간의 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인실 (계양구 병방동)



뽕뽕 언 홍시

제가 자랐던 곳은 하늘만 보인다는 그런 시골입니다. 가을 걷이가 끝나고 난 시골 풍경은 잔잔한 바다를 보는 것 같이 조용하엿죠. 그런 시골의 겨울은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아 오직 농사지은 것으로 겨울을 보내야만 했죠. 감나무로 둘러싸인 저희 집엔 언제나 홍시를 감추어 두는 곳이 있었습니 다 그곳은 다름 아닌 감나무 가지사이 작은 상자 속에 쥘 것으로 감싸져 아버지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올라가지 못해 꺼내 먹을 수 없었지만 언제나 겨울이면 뽕뽕 얼은 그 홍시를 지금의 아이스크림처럼 먹곤 했죠. 시루떡이라도 있을라치면 큰 대접에 홍시를 놓고 젓가락으로 서로 찍어먹으려 싸우던 때가 생각난답니다 형제가 많아서 언제나 모자라는 편이었지만 오손도손 둘러앉아 손시려워 굴러가며 먹어보던 그 빠-알간 홍시. 이제 추억 속에 감춰진 옛일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면 그 때 그 감홍시 먹던 때를 잊을 수가 없네요. 항상 가슴 속에 남아있는 어릴 적 그 시골풍경이 오늘은 유난히도 떠올려지네요.

서두이 (계양구 작전1동)



다음달 테마는 '나의 겨울방학' 입니다

겨울방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2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월 26일 까지 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독자로 부터 의 편지

안녕하세요? 뉴욕 한국일보 안내란에 인천 잡지 보급 소식을 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얼마만인가. 미혼으로 와서 지금은 두아들(대학생)의 엄마이지만 용현동에서 태어나 79년도에 뉴욕으로 이민왔으니 나의 반세기를 이곳에서 보냈는데도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싸해 옵니다. 국민학교 때는 학교 옆에 소금 염전이 있었고 조개 잡는 사람들, 게 잡는 아저씨들, 물 속을 들여다보면 송사리떼들이 지나다니는걸 볼 수 있었지요. 또 굴을 많이 까서 온 동네에 굴 껍질이 쌓여 있어서 굴동네라고 부르던 곳도 있었지요.

여고 때는 적십자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선배들과 김포에 있는 해병대 군병원에 위문을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때 친구가 많이 생각하는데 소식을 알 수가 없네요. 김정애 (아들 권언규) 그 친구는 집이 백령도라 자취를 했는데 김장 때는 배추를 절이고 속을 넣고 배추 찜에 동태국을 끓여 점심을 먹던 생각이 납니다.

인천 잡지를 보니까 정말 많이 발전해 지금 가면 길 잃은 미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책상에 앉아 더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과 아름다운 소식, 유익한 정보 많이 실어 주시기를 빕니다.

인천 잡지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에 평강과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미국 뉴욕에서 Dec. 3. 2003 임원순 올림

듬직한 눈사람

눈이 많이 온 어느해 겨울날, 두 개의 눈사람을 옆에 두고 찍은 사진.
듬직한 두 눈사람이 있어서 천하대장군이 부럽지 않네요.

유수정 (계양구 계산3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설날, 태어난 지 채 두 해가 되지 않은 손녀딸 유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새배를 하겠다고 집을 나서는 길입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꼬마 숙녀같지 않나요? 올해는 또 얼마나 커서 어떤 모습으로 새배를 할지 올해 설날이 기다려집니다.

최선옥 (부평구 산곡동)



첫눈 오는 날밤

첫 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밤에 딸들이 함박눈을 맞으며 즐거운 밤을 보냅니다.

채동숙 (서구 가좌2동)



나는야 꼬마 예술감독

교회는 연말이면 성탄절을 비롯해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그 중에서 단연 인기를 끄는 것은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의 재롱잔치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마치 예술감독인양 맨 앞에 꾸구려 앉아 아이들의 율동을 유심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인덕 (서구 가정2동)



누가누가 더 클까

작년 겨울에 눈사람 만들고 동생이랑~~
눈사람하고 키를 재보면서^^
누가누가 더 클까???
올해도 눈사람 만들어서 또 키 재봐야지~~**
이루리 (서구 심곡동)



시민사이버교육 이용하세요

우리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의 핵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중인 시민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의 영어교육에 이어 컴퓨터, 자격증, 행정, 교양 등 4개 분야에서 40여 개의 콘텐츠를 구성해 기초에서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시려면 시청 (www.incheon.go.kr) 및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loti.incheon.go.kr)의 시민 사이버교육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

- 어학 : 중국어입문, 생활영어, 생활일본어, TOEIC, 시사용어, 비즈니스영어, 게임, 영화미리보기, 팝송
- 컴퓨터 기초 : 컴퓨터 기초, win98, 한글문서 작성, 인터넷 교육
- 사무자동화 ; 한글 97, 엑셀2000, 파워포인트2000, 엑세스2000, 프리젠테이션 기법, 인터넷 정보검색
- 전자상거래 : 인터넷 무역, 전자상거래, E-Biz
- 컴퓨터 전문 : 홈페이지 제작, HTML 활용, 플래쉬5.0, 포토샵6.0, 비주얼베이직6.0, 윈도우 2000 서버
- 컴퓨터 자격증 : 워드프로세스 1·2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검색사 3급
- 행정실무 : 예산실무, 회계실무, 지방자치제도, 행정법, 민법총칙, 행정영어, 행정법실무, 민원실무, 사무관리실무, 자료수집 및 분석기법, 디지털시대의 대민 행정 서비스
- 교양 : 국제화소양, 성과지향 회의기법, 리더쉽 향상, 전자정부의 이해,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문의 _ 시 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팀 (440-6218)

수도계량기에 겨울옷 입혀주세요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금번 겨울의 기온은 평년(평균기온 -6~8℃)보다 높은 날이 많아 대체로 포근하겠으나 강한 한기 남하로 기온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에 헌옷이나 왕겨 등을 채워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요령

- 노출된 수도계량기는 스티로폼 또는 보온재 등으로 보온시설을 합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은 고인물을 제거하고, 보온재로 덮은 후에 왕겨나 헌옷, 톱밥을 채워 20cm 상 덮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하여 앞 수도꼭지 밸브를 열어 놓고 뒷 밸브만 사용합니다.
- 얼어붙은 수도는 파열예방을 위해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인 후 사용합니다.
- 동파된 수도는 즉시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 수리합니다.

• 고장신고 및 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766-5001	080-004-5001
☎ 동부수도사업소	582-5001	080-505-5001
☎ 남부수도사업소	872-5001	080-006-5001
☎ 남동수도사업소	466-5001	080-007-5001
☎ 부평수도사업소	502-5001	080-008-5001
☎ 계양수도사업소	543-4001	080-009-4001
☎ 서부수도사업소	567-2001	080-509-2001
☎ 강화수도사업소	934-4001	080-011-5001

※ 수도시설관리소 875-5001 080-003-5001 (구경 50mm 이상 계량기)
상수도 고장신고는 (국번없이) 1 2 1



주행거리계 무단변경 주의하세요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계 무단변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작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거래시 :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상 검사기간란에 기재된 과거주행거리와 현재 차량내 계기판에 나타난 주행거리 상호 비교
- 매매업소로부터 구입시 :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 표시란과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상 검사기간란을 확인하고 차량내 계기판에 나타난 주행거리와의 상호 비교

※ 위반 자동차매매업자 :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관할 군·구 교통과)

- 기타 : 자동차제작사의 A/S센터에서 과거 자동차정비시 주행거리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상 검사기간란을 확인하고 차량내 계기판과의 상호 비교

※ 참고사항 : 2003년 10월 전산 프로그램 입력이 원활하지 않아 정기검사시 등록원부에 주행거리가 기재되지 않은 차량도 있음

문의 _ 시 주차관리과(440-3933)

택시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운송수입금의 투명성과 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택시운임을 교통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인천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E-best카드, A-cash 카드, 국민, 한미교통카드, 서울조합카드, 신한, 삼성, BC, LG, 외환교통카드 등을 사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비접촉방식으로 온라인 조회 절차없이 즉시 운임이 지불되며 연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택시요금 영수증도 발급해 줍니다.

앞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912)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 서식 발급 및 보존)에 따라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영수증 서식이 통합됩니다. 영수증 서식은 현재 7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며 소득공제용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가 신설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의료비소득공제를 위해 진료시에 발급받은 영수증의 재발행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비(약제)납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겨울방학 맞이 청소년 프로그램

일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문의처)
1. 5 ~ 1. 10	사물놀이캠프 •단원 및 일반단원 80명 •참 가 비 : 220,000원	부여 김덕수 교육원	가천미추홀봉사단 (833-3523)
1. 15(목) ~ 1. 17(토) (2박 3일)	체력단련 스키교실 •단원 및 일반학생 총 40명 •참 가 비 : 160,000원	대명 비발디 리조트	
1. 24(토) ~ 2. 8(일) (15박 16일)	호주해외연수 •단원 및 일반학생 40명 •참 가 비 : 2,400,000원	호주일대	
1. 26(월) ~1. 28(수) (2박 3일)	호연지기 승마교실 •단원 및 일반학생 40명 •참 가 비 : 240,000원	제주도 탐라 승마장	
1. 14 ~ 1. 16	스키캠프 (희망단원 200명)	미정	한국우주정보단 인천본부 885-7284
1. 28 ~ 1. 30	우주과학캠프 (희망단원 200명)	수련원	
1. 6 ~ 1. 8	겨울해양학교(스키캠프)	베어스타운	한국해양소년단인천연맹 (889-3810)
1차 - 1. 5 ~ 7 2차 - 2. 4 ~ 6	하얀나라 스키캠프 (초등생-중학생2년)	1차-사조리조트 2차-용평리조트	인천YMCA (431-8161)
1. 15 ~ 16	엄마랑 함께하는 스키캠프 (6-7세, 초등생, 엄마)	용평 리조트	
2.17 ~ 20	마스터 스키캠프 (초등생-중학생2년)		
1차 - 1. 10 2차 - 2. 28	일일스키학교 (일반남녀노소)		
1. 28 ~ 30	겨울나기 자연체험 캠프(초등생)	밀레니엄 자연학교	
1. 7	가자! 아프리카로(초등생)	코엑스 전시장	
1. 10	박물관 탐방 (초등생)	서대문자연사 등 박물관	
1. 14	해양생물 · 곤충세계탐험전 (초등생)	코엑스 전시장	
1. 17	엄마랑 가는 겨울 여행 (초등생과 어머니)	강원도 화천	
1. 28	박물관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초등생)	부천 미니어처 · 유럽자기 박물관	
1. 31	동장군 1일 민속 캠프 (초등생)	경기도 파주 두루뫼 박물관	한국청소년인천연맹 (884-0054)
2. 4	만화 박물관 탐방 (초등생)	경기도 부천	
1. 5	눈썰매 일일캠프 (관내 거주 초중고 단원 300명)	애버랜드	
1. 6 ~ 1. 10	스키교실 (관내 거주 초중고 단원 800명)	사조 리조트	
1. 11 ~ 1. 13	탐라문화기행 (관내 거주 초중고 단원 200명)	제주일원	

인천여고 부설 방통고 학생 모집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규 고등학교인 인천여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2004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입학자격 : 중학교졸업자 또는 예정자, 검정고시합격자 (연령제한 없음)
- 모집인원 : 약 300명 선착순
- 제출서류 : 중학교 졸업증명서, 사진3매
- 원서교부 : 2003년 12월 15일부터
- 특징
 - 무시험 서류 전형 입학
 - 출석은 격주 일요일 (1달에 2번)
 - 매일 40분씩 라디오 강의 (매월 통신학습 무상 제공)
 - 입학금 및 등록금 약 70,000원 (1학기분)

문의 _ 인천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810-6317)

국비 무료교육생 모집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인정받은 홍익디지털디자인직업전문학교에서는 2004년 노동부지원 국비 무료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개요

- 모집직종 : 실내디자인, 실내건축, 정보통신 설비, 3D 웹디자인
- 모집기간 : 2004년 2월 28일까지
- 모집대상 : 자격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직업훈련상담확인증(고용안정센터)

교육특전

- 훈련비, 교재비 전액 무료
- 훈련수당 지급 (360만원)
- 국가기술자격증 의무교육
- 확실한 취업을 위한 재취업센터 운영

문의 _ 홍익디지털디자인직업전문학교 교육행정실 (515-2222 www.ihcd.or.kr)

양원주부학교 신입생 모집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나이가 많아서, 혹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배움의

부평북초등학교 평생교육원
겨울방학 특별강좌 수강생 모집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부평북초등학교는 평생교육원 겨울방학 특별강좌를 운영합니다.

- 강좌 및 신청안내 (수강기간 : 1월 5일~2월12일 5주간)

강좌명			수강대상	강좌 내용
컴퓨터	나도전문가	도전! 워드프로세서	지역주민 및 학부모	워드프로세서 자격 실기 시험대비반으로 2월 7~8일에 있을 시험에 도전합니다.
		오피스정복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필기 시험대비반으로 2월 15일에 있을 시험에 도전합니다.

- 신청기간 : 1월10일까지
-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_ 부평북초등학교 (515-9812(교환704) http://www.bubuk.es.kr)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 모집

2008년 꿈의 미래공간 송도신도시로의 캠퍼스이전과 세계화된 대학으로 거듭나는 인천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과 중국통상고위관리자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최고경영자과정 및 중국통상고위관리자과정 모집요강

구분	최고경영자과정(제1기)	중국통상고위관리자과정(제5기)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04. 1. 5 ~ 1. 31	2004. 1. 5 ~ 1. 31	본관 5층 519호실
등록	2004. 2. 1 ~ 2. 13	좌 동	한미은행 인천대학교 출장소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 개별통보)	좌 동	
수업료	학기당 250만원선	학기당 170만원선	추후 확정 및 고지
전형료	50,000원	-	
교육형태	1년 2학기제, 주 1회(수요일)	1년 2학기제, 주 2회(월, 수요일) • 월:특강 • 수:중국어회화	교육시간 19:00~21:50
지원자격	최고경영자 또는 임원, 국회의원, 시 의원, 고위 공직자 및 전문직 등	중국에 관심있는 각 분야 지도급 인사	학력제한 없음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해당자) 1부 • 본인및배우자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문의 _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과 770-8502~3(http ://www.incheon.ac.kr)

인천녹색연합 자연체험 학생 모집

인천녹색연합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자연체험을 함께 할 어린이와 청소년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초록동무’ 어린이 체험 주제 : 계양산아 놀자〉

- 3월 얼굴 알고 친해지기
- 4월 생명(씨)의 시작 / 계양산 진경 감상
- 5월 움직이는 친구들 (나비 · 곤충 · 꽃 등 찾아보기)
- 6월 생태공원 방문
- 7월 계양산에 습지도 있어요
- 8월 여름 자연학교 체험
- 9월 물들어 가는 계양산
- 10월 생태공원 방문
- 11월 계양산 일년을 되새기며(실내교육)

〈‘게논’ 청소년 체험 주제 : 우리나라 갯벌을 알고 사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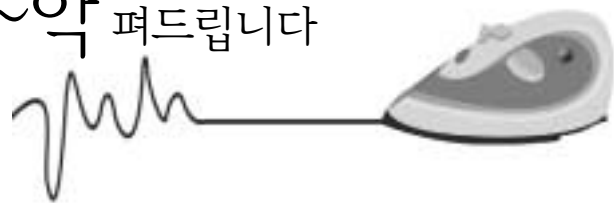
- 3월 사막을 찾아서 (사구)
- 4월 살기 위한 갯벌의 몸부림
- 5월 개랑, 조개랑, 지렁이랑 놀자
- 6월 우리 어촌마을 체험
- 7월 염전 체험
- 8월 해양 생태계 체험
- 9월 염분을 먹고사는 식물
- 10월 갯벌위의 공룡
- 11월 철새들과 함께

모집대상 및 기간 _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선착순 50명 / 중학교 1학년~3학년 선착순 30명 (청소년 모임은 동아리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가비 _ 어린이 · 청소년 월 5천원

문의 _ 인천녹색연합 (548-6574, 6274, www.greenincheon.org)

사업 고민 좌~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표4 (맨뒤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친 가정주부들에게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양원주부학교에서 불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 지역 및 연령 제한 없음

기초반 : 초등학교 미졸업자 / 중등부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중학교 중퇴자 / 고등부 : 중학교 졸업자 및 고등학교 중퇴자

모집인원

기초반 : 300명 / 중등부 : 1,000명 / 고등부 : 300명

모집방법 : 200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지도방법 : 국어, 영어, 한문, 도덕, 수학, 과학, 국사

교육연한 : 각 과정 1년 (주3일, 1일 4시간 수업)

문의 _ 양원주부학교 행정실 (02-704-7402, 02-716-0608 www.ajumma-scho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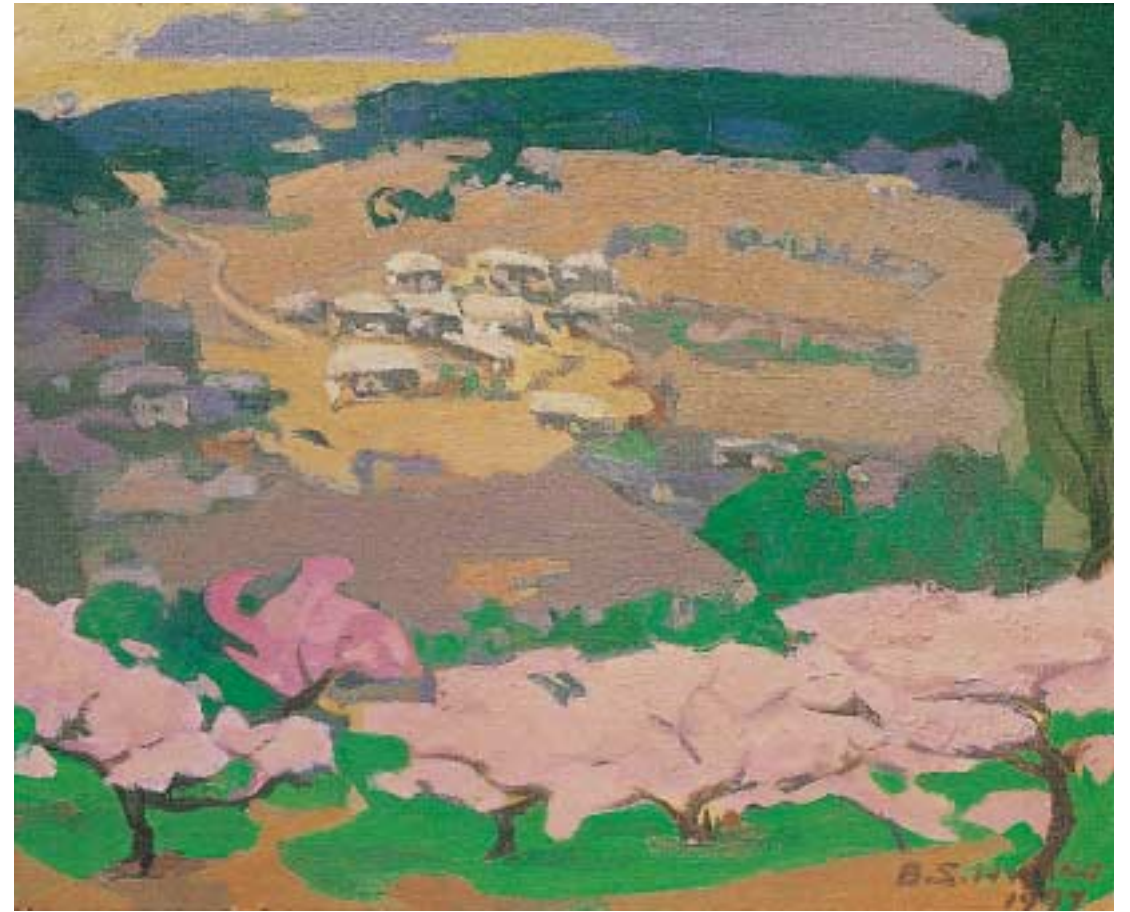
주의! 송도신도시 매립관련 사기 피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송도신도시 매립공사와 관련해 각종 헛소문 및 허위 계약내용에 대해 각종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매립공사(토사상차, 운반 및 사석발파, 소할, 운반 및정지작업)를 시행한다고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하도계약을 종용하는 등 일부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송도신도시 매립사업자로 지정되었다며 특정업체를 사칭하거나 송도신도시 매립관련 하도계약권유, 송도신도시 매립관련 설명회 개최 및 토석조달 설명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신도시 매립공사는 3공구 매립공사를 (주)대립산업이 준설토를 이용해 매립 시행중에 있으며, 게일코리아(주), 더존개발(주), (주)대륙토건과는 전혀 계약체결한 사항이 없으니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 송도매립팀(450-7200~5)

화 폭 에 담 긴 인 천 풍 경 ⑨ | 황병식 〈남촌의 봄〉



〈남촌의 봄〉 캔버스에 유채, 60.6 × 50.0cm, 1997

황병식 화백은 1970년대 이후 인천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미술협회인천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화단을 이끌어 왔다. 오늘날에도 인천미술계의 어른으로 후배들을 격려하고 늘 청년 같은 열정으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오랫동안 종사해온 교직생활을 접고 만수동 작업실에서 홀로 기거하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황병식 화백의 작가정신은 인천지역 화가들에게 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색채가 밝고 과감한 원색들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림이 생기롭고 무엇보다도 그림의 구성이 치밀하고 조화롭다.

일본 유학시절부터 황화백이 늘 관심을 갖고 그려온 장르는 풍경화이다. 회색조의 밝은 원경과 코발트빛 중경, 그리고 황토빛 근경으로 특징지어지는 황병식 화백의 바다풍경은 1985년 이후 〈바다와 정물〉연작으로 귀결된다. 〈바다와 정물〉연작은 동중정(動中靜)의 양상을 보이는 정(靜)과 동(動)의 이질적인 만남, 흔들림을 다스려 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연함과 포용의 모습을 세상에 전하는 철학적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화면의 설정방식과 대상의 표현방식에서 이 그림은 〈바다와 정물〉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봄이면 복사꽃 향내가 진동하던 남촌을 찾아가 옛 모습을 기억하며 그린 것이라 한다. 대상의 세부를 과감히 생략하여 복숭아꽃을 전경에 배치하고 이에 둘러싸인 마을의 정경이 동화속의 마을처럼 한가롭고 또 평화롭다.

글 _ 이경모(인천대학교 겸임교수/미술평론가)